이히강뎐
보
임자납월일 가이

# 이현경젼

디명가졍연간의쳥쥬ᄯᅦ의자난지상니잇시되셩
운이요명운졍도라일직쳥운의올나벼사리이
부시랑의이르러셔너시분나믈ᄒᆡᆼ하야시랑부
쳐일시ᄌᆞ블ᄒᆞ니실ᄒᆞ의다만십셰여아와삼셰남ᄌᆞ잇
지나본디ᄒᆞᆫ만셤하으로사고무친ᄒᆞᆫ지라의지할고지업시
뫼초죵장ᄉᆞ난주진이지니시나효셕졔젼에극키여려온지라
여ᄋᆞ의일홈은현경이요남ᄌᆞ의일홈은연경이니총명ᄒᆞᆫ
즁의현경이삼셰로부터글을심재니총명ᄒᆞᆫ남ᄌᆞ라도밋
지못할네라지조일취월장ᄒᆞ야팔구셰당ᄒᆞ미지셔빅가

을무불통지ᄒᆞ고무쳘들면용자비둔ᄒᆞ고입을열면자〻
주옥이요단고싱쳐훙망을흉ᄒᆞᆷ의품에더랴부모싱리예기
지문장과너무활달ᄒᆞ물질거안이ᄒᆞ냐미샹[illegible]계ᄒᆞ되녀여ᄌᆞ
되여맛당이여공을닐삼지산이ᄒᆞ문엣전션고요현결나엣ᄌᆞ
오디ᄉᆞ람니셰상의나셔셰난ᄯᅢ유풍을본바다필하의문장
을일우고입가온디직션정풍을여금에임군을충셩의로
셤기면니일홈니제련각의올울더나오니엣지깨치안니
ᄒᆞ히요죠여몸니비록여ᄌᆞ나ᄯᅳ쳔츄열ᄒᆞᆫ녜ᄌᆞ을웃난니
원컨디예복을벗고남복을ᄒᆞ야부모을보와남ᄌᆞ의도리
을칭ᄒᆞ여지이다부모쳐암은그당엽되믄칙ᄒᆞ시다가쳔

뎌니여려순교ᄒᆞ니시랑니성각ᄒᆞ되이아희나이여러기로여도
을볻나일허ᄒᆞ니아직ᄒᆞ난다로보련니와엽기못ᄒᆞ면졔
시사로보고려ᄒᆞ리라ᄒᆞ고허락ᄒᆞ니부모난그거동을보ᄅᆞ
ᄒᆞ미요현뎡은실심이너기ᄃᆡ라남복을입고쳐셩의도
[illegible]을찻ᄒᆞ니이연도의아ᄃᆞᆯ로알ᄯᆡ롬열녀ᄅᆞ효졔십셰
예부도주몯ᄒᆞ니노복을거나려쵸죵을주진니저디이
보난사람니눈물지여가로ᄃᆡ현뎡의부모난비록십셰
치아솔주어시나치상ᄃᆡ동은남의엘아ᄃᆞᆯ은불어산니
ᄒᆞ리라ᄒᆞ더라졔셜녀류ᄒᆞ야삼년을지나니효졔의연
광니십삼셰라셜고리홍뎡ᄒᆞ고ᄃᆡ도탁셜ᄒᆞ야샤람의

졍신을놀니더라삼연ᄒᆞ도의공부ᄂᆞᆫ심씨문장이도여
난지라쳥명이쟈〻ᄒᆞ고쳥산빅옥이돌쇽의뭇침가타
미지샹가효연ᄌᆞ쳬셔도묘와상죵ᄒᆞ니육칠인이라셰
부시랑쟝착사의삼ᄌᆞ장쳠장산장션과쳐사졍공의
아달졍효와티생졍〻공의아달반효와슈찬위졍몽의
아달위문의효뎌부뎌왕이ᄒᆞ야졍의죤밀ᄒᆞ니예엇사
람이다미싱졋효연이라홍명활달ᄒᆞ야당치지샤도리
쇼지쳔명의게밋지못ᄒᆞ되장시랑의삼ᄌᆞ장션이총명
ᄒᆞ야효동파의문장을겸ᄒᆞ야쳔명과쳔[illegible]반분ᄒᆞ고
로서로지괴상참ᄒᆞ야판로의녀지니더라일〻은쳔명이

여러붕우로더부러시셔ᄅᆞᆯ챵화ᄒᆞ다가ᄎᆞᆺ더져간후의들러오니
유모오쳘벗기며죵옷니살오다시탈너기쳐ᄒᆞ시고쇼져초ᄅᆞᆯ
노쇼공ᄌᆞᄅᆞᆯ다리고메시니ᄒᆞᆫ츄가장빗분지라ᄉᆞ도ᄒᆞᆫ쉬ᄎᆞ셔
효되여남ᄌᆞ로더부러죠곰도여ᄌᆞ의도리ᄅᆞᆯ만니ᄒᆞ시고쳡
의로우믈상각지아니ᄒᆞ시니어난노쳡의근심업ᄉᆞᆯ가ᄒᆞ나니
더ᄒᆞᆯ고젼두ᄅᆞᆯ엇지ᄒᆞ랴ᄒᆞ시난니가쳔졍니쇼완어미난염
예말나부모의명을바다이몸니되여죵신토록니ᄯᅳ진입은
트려ᄒᆞ나니어미ᄂᆞᆫᄒᆞᆫ말도죠련니고치기어려오나번ᄯᅧ미ᄒᆞ
나요인츄의난다시번지ᄒᆞᆫ말비쥐예든니지말나ᄒᆞ니유모
셔니엽쳬블너나더랴일ᄋᆞᆫ쳐주터수연니되여던니얼ᄂᆞᆫ운장

션녀ᄒᆞᆯ노와현경을보고ᄉᆞᆯ흔드르니오난가ᄅᆞ(울)의산월을
주려ᄒᆞ시더니파거날너밧부다ᄒᆞ야두각노션품ᄒᆞ고야모
난도셜ᄂᆞᆫ장ᄒᆞ다ᄒᆞ너쳘의고지도독듣ᄒᆞ미번듯ᄒᆞᆫ지라
ᄒᆞ례을미리ᄒᆞ노라현경너소완천ᄒᆞ쳔비단니모화난디
어린져죠도참방을엇지미드며쇼져ᄯᅩ찬긔진너잔약ᄒᆞ야
장즁의드지못ᄒᆞ더니쳔말인가ᄒᆞ노라장연니완글
ᄒᆞ쳐산너ᄒᆞᆫ다쳘의기져도셔을읽치못할게시니유
러찰기과광ᄒᆞ괴엿더ᄒᆞ요ᄒᆞᆫ다현경너비졈의상각
ᄒᆞ되너임북남복을ᄒᆞ여시미쳘랑의도참방ᄒᆞ면
쳥운의올나옥졔을밧친거시너엇지아름답지안너

하릐요ᄒᆞ고파뎌날을지다터면니파얀니경하리재될니
장즁의ᄅᆞᆯ더가니츤져난칙문니요지각은니삼각이라
이뎍쳔잗라이라도오하뎌못지못할너라만쵸다부결노
코고져몬니가고져ᄒᆞ되쳔명파장션니한가지온붕우
효육인을면져지쎄주고장실은나흔의재명지을나
조와ᄒᆞᆫ을씨되현명은한가니거러의사은안니하더니면
오리각의다ᄂᆞ트ᄆᆡ쥰바치기은저촉ᄒᆞ니현명니비도쵸
부션잡고조히을쟬쳐들고일필휘지ᄒᆞ니찰치예숣
니쳐러고단산의봉니덥노난듯순식간의맛치니졔찰
등뇌친복을마지안니ᄒᆞ고장션니츈찬완니현의문

장운니무얼디이와곰읜신속하문진실노칠보셩장
하난져쇼의셔더하도다현뎐니미쇼부답하더라난하야
탁발츈니장쉰운쳔니부시랑에졍도의장자쳔뎡니라
나히십오셰요듣치난예부서당장홍의셔최아단연니
하나히십오셰라하뎌도불운니드듸니장실의동념은현
뎡니다지여주에던니여셧사람니다참방흔니그문장은
가히살난니라부흐기은다하뎌현자장쉰파둘차의홰
락한풍골과거동은진쇼은사랑흔라장쉰의로한남
학사은하여시고둘은져난한임졔쇼은하나시니한입학
사의풍치와발근얼골은가는물뎔가티여사람의뎔

신은노든산지라ᄀᆞᆺ보난ᄉᆞ람니뉘안니층찬하되쇼졀문
의나며원심ᄒᆡ신니비유지도실ᄂᆞᆫ니는진퇴하며잔산되도삼
의두ᄃᆡ시나보니쳥춘기년만콩의ᄉᆡ녀낫고치의화ᄃᆞᆯ은
심니ᄯᅦ버ᄃᆡ려다삼닐유가운파춘추의한쉰의나마
가직ᄉᆞ은치찬하되에ᄃᆡ온의논과쳥직한선문나은
노현선군자려다현자고미절계하셔니논탈니ᄶᅡᆨ할ᄂᆞᆫ니
영려다일ᄂᆞᆫ장찬일니쇼회후의비학사을찻다가
만나지못ᄒᆞ야이학사집에ᄇᆞᆫ드러바도줏당의드러가
시예다ᄃᆡ무러왈너의한임어되갓나요시여ᄃᆡ왈침방
의셔졔즌은실ᄂᆞᆫ드리더니다바로드ᄃᆡ갓니학자쇼졔도

안이ᄒᆞ고첨쳑의、지ᄒᆞ야ᄒᆡᆨ을보거날칼님니나아가문왈

쳡네무삼연고로지금가지니지안여ᄒᆞᆫᄯᅢ날ᄒᆞᆫ고학사문득놀

나침금을물니치고셔을쓰더니띠관쓴작일곰담의다사

ᄒᆞ미도황혼의도라와가중범사ᄯᅩ다변ᄒᆞ야ᄯᅢ명ᄒᆞᆫ후의

잠을어더시지못ᄒᆞᆫ바냐심긔불평ᄒᆞ야그져누어던이쳡

이ᄌᆞ고을일우도소이다수디의좌졍ᄒᆞ미칼날심어학사

을다리고슈작ᄒᆞ니츄광니더옥낫타난지라옥안의서로

잠을시지못ᄒᆞᆫ예츄흔을나효소고두ᄇᆞᆯ을허트며쇼셰

을안이ᄒᆞ야지나홍광이ᄀᆞᆺ샤ᄒᆞ고아름다온기ᄐᆡ온츈풍

셰우즁의도란화반기ᄒᆞᆫ난듯취당화아참이실ᄯᅢ곰갓

든셔셔도꽃목하야사닷ᄒᆞᆫ물셔닷지못ᄒᆞ야예린다시바라본
사롬읍너다학사관셰을마치더문득졍학사던과위사
신문너참기와쳐도담효칠서잇사옥폐예모란화만발
ᄒᆞ요춘풍은슴〻하야화향은던발ᄒᆞ니졍학사춘찬
왈승롬니졔가관산희을어더면얼성나깨ᄒᆞ더타ᄒᆞᆫ디
위라인어왈샛쳔얻시춘풍의맞치오되지산니ᄒᆞ여셔
빗치섭난니쳥쳔명월과곤갈의옥갓트산희을어드
면아름답지안니ᄒᆞ랴장할입옥면을무쳐도가되고벋
가탄산희은흔이셔졔싱을보와왈그리든은다쥐쳐ᄒᆞᆫ
초삭지실니타가〻쳐자을침혹ᄒᆞ기든무삼실노화

쉘은 상각ᄒᆞ난요나 ᄒᆡ십오셰되도록 슈서ᄅᆞᆯ 엿지못
ᄒᆞ야난더 좨쳡은 실도ᄒᆞ로 샥지 인니노다 ᄅᆞᆫᄒᆞᆫ나 뫗치비
록 곱다ᄒᆞ여도 요신갓티 여한 같갓치 곱지못ᄒᆞ고 달은
광쳔생시나 ᄌᆞ티엽난니 여ᄌᆞ도의 논할진디 쇠시가 탄니은
중ᄒᆞ고 남ᄌᆞ도의 논할진디 이쳔텰가 탄니은 여게안히.
은삼고 졔쉰니로미고 곰니요 원ᄒᆞ야 쇄시난 상각ᄒᆞ게
이렵고 현별은 남ᄌᆞ도 낫시이 옥졀엽시 ᄒᆞᆫ신도록 취
쳐치안니ᄒᆞ노라 졔상 알ᄂᆞᆫ 쳡의 말가타면 자직니 남화
위여ᄒᆞ야 장ᄌᆞ도의 안ᄒᆡ되다 장실피 좌즁니 박장디효
하며다ᄌᆞ직은 현별의 자니 요ᄌᆞ도만 장얼의 자미라니 학

사람효자약ᄒᆞ나심즁의그우키짓거안너ᄒᆞ야쟝ᄒᆞᆫ임너
유의하난가ᄒᆞ더라에난효인ᄂᆞᆫ도록쥬찬은나효와시사
은찬화ᄒᆞ다사각〻혼은난와간여라잇셰저상가예쳐
이학사와쟝ᄒᆞᆫ임의쳥ᄒᆞᆫ효연의도봄모면풍너일셰
무생이요져효와문쟝은사람ᄒᆞ야구혼ᄒᆞ난너구름못
듯ᄒᆞ나바참너취사ᄒᆞ여허혼치만너ᄒᆞ더라잘학사호은
로이학사다려무르되효져년무모ᄒᆞ시기도혼인은자단치
못ᄒᆞ고ᄯᅩᄒᆞᆫ요죠슉여엇기쉽지만이ᄒᆞ야혼취가늣겨이와
쳥은무상연고로혼취가더디요이학사효완쳥이학여
엇기어려올재나난엇지그리슈오며ᄒᆞᆫ문때나히어리고지질

이잔약ᄒᆞ야여자와가탄지라일로ᄒᆞ여곰나히삼십너디문
후의ᄯᅩ쓴질빈수에타ᄒᆞᆫ디장찰심너혈너울여엇기
에렵다ᄒᆞ니가잔그르도다이제혈은부모업사시고연결
너ᄯᅩᄒᆞᆫ어려ᄉᆞ오니일직취ᄒᆞ야가ᄌᆞᆺ은막기고둔
차난운쳬가느져간너엿지삼십이늣지안이ᄒᆞᆫ니요이
학사디쌍형의갈요회미지수감ᄯᅥᆨᄒᆞᆫ나현덜의며
당ᄒᆞᆫ여난팔자당ᄒᆞᆫ논이터니엇재취쳐효먼은의
논ᄒᆞᆫ리요장칠임너디효쌀네논다름너산내라칠
여심기뵐혈찬무뫈은에드면혈누의기더막폐임
의로출입은못ᄒᆞᆯ가ᄒᆞᆫ미도다이학사미우은앵기더

고잠죠완쳔누ᄅᆞᆯ셕은쇠잣밋빠지외찰바요엿거
셩신군ᄌᆞ의알바리요ᄒᆡᆼ은효쇄ᄅᆞᆯ두고보다비
록사샹니념도록ᄒᆡ쳐반니ᄒᆞ야도찬에븐외지
최을일ᄅᆞ지안니ᄒᆞᆯ리도다ᄒᆞᆯ찰념니ᄒᆞ찰ᄒᆡᆼ
인즁유쳐졀파옥안거샹니화두맛다니납듯다
도자랑ᄒᆞ여든음랑ᄒᆞᆫ챵ᄒᆡ의대뭇들니면쳥부
되쉬쉬오랑니학하흔연을오난쳔가리오고낫ᄂᆞᆫ
너우에빨앗어한쳔여갑히니유의희연니ᄒᆞ야
쇄몬쇄음동ᄒᆡ되효ᄒᆡᆼ은졈말ᄂᆞ고나흉모면자면
안니라쇄ᄒᆡᆼ돈의미죠ᄒᆞ니라이쳬에쳔ᄒᆞᆫ이련ᄒᆡᆼ

양간을맛치고몸사탄ᄒᆞ연허샹을몸뷔ᄒᆞ야모
너흠간ᄌᆞᆫ다의두쳐과샹자셔니위의엄슉ᄒᆞ고례동니
잭잭ᄒᆞᆫ동의셥회쳥이여쎄미되할엄할사명찰
원화부도러ᄉᆞ이쳔뗭미ᄃᆞᄒᆞ야거ᄂᆞᆫ졍쎄생각ᄒᆞᆫ
되게ᄒᆞ면몸의쟝원ᄒᆞ야ᄆᆞᆫ니진동ᄒᆞᆫᄃᆞ니에가되
엿ᄌᆞ오ᄃᆞᄒᆞ고원졍을고ᄒᆞᆫᄃᆞᄒᆞᆫ고로ᄌᆞ쳬여나왜츈
좃을쳬치고이사의말ᄃᆡ리예나사아기ᄉᆞᆯ막고동곡ᄒᆞ
ᄒᆞ예웨여왈ᄂᆞ도당노ᄒᆞ야ᄂᆞᆫ네의원통ᄒᆞ고문ᄒᆞᆫ몰엇
취주옵ᄂᆞᆫ셔츌ᄃᆡ모든ᄃᆞ니ᄂᆞᆫ놀니야샤셔니뢰ᄒᆞᆫ께
딜셔샤뗑ᄒᆞᆫ셰ᄂᆞᆫ치다ᄒᆞ고흡셰으로취ᄒᆞ면ᄒᆞ고뮨왈

부인의거동을보니렬부아니시면분명ᄉᆞ족이
타
쥭무삼원악ᄒᆞᆫ일이잇서니계쳥ᄒᆞ논요졍ᄉᆡ
뒤찰쳡은곳션비뉴안의쳐졍새숩더니기아
비ᄂᆞᆫ비록션비나뎡화거족이요쳡너ᄯᅩᄒᆞᆫ
뎡문여ᄌᆞ라ᄎᆞᆯ가ᄒᆞᆫ십연을지나오뮈ᄌᆞ여네흔
낫고취록ᄒᆞ옵더니국귀왕셰츙니고권셰을
밋고겁칙ᄒᆞ여졔쳡을사무려ᄒᆞ오니쳔ᄒᆞ의엿
지이깃치불측ᄒᆞᆫ일리어디이ᄉᆞ오리깃쳡의
지위비게ᄒᆞ가밋칠가졔혀ᄒᆞ야욕을참고순
히나마가셰츙의압페쳐자결코져ᄒᆞ옵더니

쌍봉을만나ᄒᆡ내쳔연바ᄅᆡ옵던뎨원삭ᄒᆞᆫ물쌀뎌ᄒᆞ
담을살ᄒᆞ나시고풍속을졈쳐ᄒᆞ숩소셔에사듯기을
ᄯᅢᄒᆞᆫ던ᄯᅴ모ᄒᆞ야좌우로ᄒᆞ며음국귀의가졋을졔
박ᄒᆞ야봉의까도우고졀ᄯᅢ을부총의대려ᄉᆞ와의
로왈맹셜졍젼의살오며부난의원수을갑푸
려타ᄒᆞᆫ디졍셰뎌삽사려ᄒᆞᆫ고물너나뎌타벗튼날
표회을다ᄒᆞᆫ후의여ᄉᆞ이졘텬이ᄒᆞᆯ반ᄒᆞᆫ쌀신은
듯사오나보든즁의부ᄒᆞᆫ마말봉지원니요졍졘니
빅쳠을고ᄒᆞᆫ츅되빈다시빈자쳐밀윤불ᄒᆞᆫ귀ᄒᆞᆫ
고일윤중의부ᄒᆞᆫ을대옥각별게ᄒᆞᆫ오는ᄉᆞ룸의

됴히을 알게ᄒᆞ미라 셩ᄒᆞᆫ 국법은 권쳔나 셥난고로
쟝쳑의ᄒᆞᆫ 죄을 노박ᄒᆞ고 쟝삯날 ᄂᆞ니 며엇게
금삼쳔ᄒᆞ야 법엿니 찬갓치 박삽뎌 날듯ᄌᆞ오여
쌍쳬ᄒᆞ니 분쌱 빵ᄌᆞᄒᆞ와 국쳬을 밋잡고 작폐ᄒᆞ
노엿니 만ᄒᆞᆫ 몸ᄒᆡ니 쳔리 유안의 쳐쳠ᄊᆡ 자ᄉᆡ기 밋씨물
탐ᄒᆞ여 쳬쳠을 삼으며 ᄒᆞ고 빅쥬의 장졍 ᄉᆞ십명을
보니여 엽치ᄒᆞ여 오다가 노즁의 가졍 분다가 두엇과
노니 복션제ᄒᆞᆫ난 쳬즁의 무상ᄒᆞᆫ 물 다사리고 국법
을 발기소셔 ᄒᆞᆫ데 만조빅관니 칭찬 안니ᄒᆞ리 업더라
쳔ᄌᆞ 직시 쌍쳬즁과 유안의 쳐을 보니 답쳔의 힐로

문ᄒᆞ시이졔 ᄒᆞᆫ이 거리 못ᄒᆞ야 ᄂᆞᆫ이고 단ᄒᆞ거날 ᄒᆞᆷ

졔되도ᄒᆞ야 가라ᄒᆞ되 내국 녹지션의 도열쳐 다셔

블치ᄒᆞ니 엇지 그져 두리요ᄒᆞ시요ᄒᆞ고 ᄒᆞᆯ 쇄

홍은 ᄲᅢᆨ달 관작ᄒᆞ고 칠연을 ᄎᆞᆯ념도 못ᄒᆞᆫ 때

ᄒᆞ고 졍씨ᄂᆞᆫ 쳔금으로 부흉ᄒᆞ야 도라가 살나ᄒᆞᆫ

시고 이 편명은 등별이 찬좌ᄒᆞ야 고문의 작연분

여라 각ᄒᆞ여 그ᄯᅢᆷ 망을 단복지 반니 찰리 엽더

라 일ᄒᆞ무ᄒᆞ고 세포블 겁유ᄒᆞ고 산무도 쳑ᄒᆞ야 이

셰사의 교좌을 유쾌 쉬 산니 찰리 엽더라 열ᄂᆞᆫ 쳔ᄒᆞ

단죠쾌 셩을 면ᄒᆞᆫᄒᆞ야 에주을 ᄒᆞᄂᆞᆫ 쥬셔 고굴을 지의

셔동이 염예할바 안니요 이쳬순 작위대저ᄒᆞ야
개니 엇지 예뤼면 괴ᄒᆞ니 말ᄒᆞ야 너의 정쳐 몬ᄒᆞᆯ
을덜귀ᄒᆞ나 요예비ᄒᆞ여ᄂᆞᆫ 죄도ᄒᆞᆷ신ᄒᆞ돈놈ᄒᆞᆫ
취는 양ᄂᆞ 할려니와 맘얼에 도ᄅᆞᆯ 괄ᄒᆞ야 쳠ᄒᆞᆫᄒᆞ면
니에셔 가쟝을 두려워ᄒᆞ고 구ᄒᆞᆫ을 금벌ᄒᆞ야 상을
맛들고 국을 맛보와 전치ᄂᆞᆯ ᄒᆞ엄 삼아 주차ᄒᆞᆫ 예ᄂᆞᆫ
되티요 차라리 ᄒᆞ로ᄒᆞᆫ 뒤의 일홈에 주비예 올니
고임상 ᄒᆞᆯ상ᄒᆞ야 염ᄂᆞᆫᄂᆞᆫ ᄒᆞᆯ쳠의로 쳠기면 여긔ᄒᆞ야
체안니 ᄒᆞᆯ니오 ᄒᆞᆫ대 ᄒᆞᆯ미 묵묵ᄒᆞᆫ여 물더나며 ᄒᆞᆨ야
니혐의 불안ᄒᆞ야 쟝ᄒᆞᆨ야 쟘의 안니 쟝상니 만ᄒᆞᆫ 변

당의드디(러가) 셕혼예라 현면니 쟝여의 취혼물보고문득
찰혐나 엇더훈미 식을 차즈갓더뇨 쟝탁사 미요왈 쇼
제요사의 가즁의 큭셕을 메쪄면니 편혐니 참예훈리
라니 탁사 피왈 호계요 셔의 축념훈나 비각의 스계
엽쇄 참예 최 못할리로다 쟝탁하 소왈 최하 편계
하란니 엇지 최사 훈리요 고제예 소미을(미스즐고) 누유의 솔나
가니 쟝탁사의 양혐 쟝참 쟝안 등니 혼상을 셔ᄉᆞ매
안치고 말삼을 난의다까 이여사 오물 보고 반기ᄯᅢ 즈작
혐은 어디로 쳐오난자 모본계 더의 반겐니 의예서너
아물이 초연하장의 봄의도 옆키 훈들 엇지 옛 여살도

로미올흐리오ᄒᆞ나이ᄒᆞᆨ나소쇄양형은명가
로더부러시가을쟝화ᄒᆞ고소졔난님자극변
ᄒᆞ야거ᄃᆞᆯ녀사거날얼벽신유심ᄂᆡ아니찻고도
로쳐ᄂᆡ야착ᄒᆞ야오ᄒᆞᆫ티좌즁이되소ᄒᆞ더라
좌졍후의풍악을베푸러유리되ᄒᆞ박
잔의수을가득부어권할시고구조쳐랑
ᄒᆞ야신효치못ᄒᆞ반을ᄀᆡᆺ셔되듯ᄒᆞ야좌즁
졔인니ᄶᅢ다락ᄒᆞ야졍신이ᄉᆞ시몽더라좌즁이챵
예을히롱ᄒᆞ며귀로졀기더라챵녀즁위
명이라ᄒᆞᆫ난션시용뫼졀묘ᄒᆞ고ᄌᆡ화셩ᄉᆞ

예옥이블샹여시니혜우흔모란화혜로여런것ᄒᆞ
고쳔만가지티도롤ᄯᅦ곰여ᄉᆞ고우음ᄒᆞ래날ᄂᆞᆫᄃᆞᆺᄒᆞ니ᄇᆡᆨ
뎨뒤비ᄒᆞ고일월가ᄐᆞᆫ안친보원군의즘흘ᄒᆞ고ᄒᆞ니잠
학사의풍치에셔비나더ᄒᆞ더라위연니고쳬롤네ᄋᆞᆫ
리ᄉᆞ로ᄃᆞᆼ복ᄒᆞ고ᄒᆞᆫ쳥ᄋᆞᆯ이시지못ᄒᆞ야ᄒᆞᆷ샹늘부
에잡고술잔ᄋᆞᆯ놋치드러셰사의납톄나야가엿ᄌᆞ오ᄃᆡ
쇼쳡은샹쥬사옵고나히셰티기로ᄉᆞ듬ᄋᆞᆯ쳑게치안
니ᄒᆞ야난니샹공을ᄒᆞᆫ번보오매쳡의ᄆᆞ음의황홀
ᄒᆞᆫ지라 갈니쳥ᄒᆞ옵나니빅년가기ᄅᆞᆯ멸우여원앙
비취의락ᄋᆞᆯ일워지니다 셰사단ᄋᆞᆫ늘반기ᄒᆞ야

고ᄒᆡᄒᆞ니셰여나더도든의여다두해ᄒᆞ고젹즁니다공뎐

ᄒᆞ며와날니커울며문현각ᄒᆞ난니알오뢰황졔양

학생을입편ᄒᆞ타ᄒᆞ나니다ᄒᆞ니잔학사이여사을다

러고피ᄌᆞ을다고문현삭의가두터ᄒᆞᆫ담ᄒᆞ더니문

듯잔박더러옥소뢰냐거날노니야문을곱뢰여뎌본

니할졔월삭을좃차왓난지하양난니더뎐ᄒᆞ야밋쳐

쵸복을입지못ᄒᆞ고과만뎐복의호마지니할졔두학

사의할망ᄒᆞᆫ새을보새고우워가다ᄀᆞ더ᄒᆞᆫ신운무ᄉᆞ가

탄니의비옴을보고그뢰지놀내ᄂᆞᆫ다뎐든운마음을

산ᄒᆞᆫᄒᆞᆫ타ᄒᆞ시니옛사예장학사자터우의산치니

고혼이 ᄒᆞᆫ미 날노더 ᄒᆞ더라 양인니 되샬셔 좌우를 살피
뵈고 옥음을 ᄂᆡ리와 조용니 일너가라 ᄒᆞᆫ데 짐의 심즁
니 울젹ᄒᆞ나 즁의 긴급ᄒᆞᆫ 일니 잇스리라 평등 파ᄂᆡ
논코 치ᄒᆞᄉᆞ 불의예 미찬ᄒᆞ니 평등니 놀ᄂᆡ여 ᄯᅩ다 양반
니 ᄃᆡ활 쏘산 듯니 익구 궁의 잇사와 ᄃᆡ하을 살피리
못ᄒᆞ오니 불미ᄒᆞᆫ 온죄을 ᄉᆡᆼ되여 ᄎᆞᆷ곰ᄒᆞᆫ 옴겨
니와 천고리 ᄒᆞᆫ의 무삼일을 몬ᄎᆞᆷ치 못ᄒᆞ오리 하샹
니 양착ᄒᆞ사 다ᄒᆡ야 만니 일너 가라 ᄒᆞ데 남평주 왕니 신샹
ᄐᆡ평의 도ᄯᅥ부터 합셰되여 모반 ᄎᆞᆯ 듯ᄒᆞ니 헤평은 짐
니 쳑히 찰 여니와 주왕은 짐의 슉부라 잔차 엇지ᄒᆞ

대요현명니복지후왈일어비록어며울뢰라도국법
은사졍니엽사오나뢰히히평을자바엽문ᄒᆞ면즉고
할겨시니효셰을나타와문젹ᄒᆞ시미보룰가ᄒᆞ나니다
장략사그대도알온디왕졔오희너여환궁ᄒᆞ실ᄯᅢ앗
학사에젼의며아가빡괴는젹숙니잇셰곤심어뫼옵고
안의는반신니그미을알듯ᄒᆞᆫ온니실ᄂᆞ니두뎌온죄라복
원뎌ᄒᆞᆫ는화우을찰퇴슈쟉면날뎍젹의당유셰을
죄다뎨이면뎨ᄒᆞᆫ엿죄할뎨ᄒᆞᆫ서ᄯᅡ잇가삷니젹연니셔
다의사칭차을ᄯᅢ물너옥공을타시고환궁ᄒᆞᆫ서니장
학사이학사다려그ᄆᆞᆫ영죈날ᄒᆞᆫ다ᄒᆞᆫ디라과연디니

예루자약니 홈어세을 끼다리더니 이도ㅣ 빨끼 훗
예부루ᄒᆞ니 만조ᄇᆡᆨ관니 이확사의 너들 소편을
황봉ᄒᆞ고 황뎨 더옥 긔특ᄒᆞ니 너겨 고ᄒᆞᆫᄒᆞ논 ᄆᆞᄋᆞᆷ을 뉴
뎜ᄒᆞ니 장착사 더옥 편ᄒᆞᆫ 쇌자 작뎡의로 더부러
동문셩의로 동방옵졔ᄒᆞ야 ᄢᅢ 살니 됴ᄒᆞᆫ 동풍의
도디고 말곤 ᄆᆡᆼ갑은 밋지 못ᄒᆞᆯ네라 젼셜로 ᄒᆞᆫ
곡의 졍을 엥작니 포름 맛도다 옐로 조차 참복ᄒᆞᆫ
더라 이젹의 황졔 승상 리ᄇᆡᆨ을 자바드려 국문ᄒᆞᆫ
지니 남ᄆᆡᆼ왕의로 더부러 도반ᄒᆞᆫ 미젹 실ᄒᆞᆫ지라
황졔 ᄒᆞᄉᆞ 남ᄆᆡᆼ왕을 별회ᄒᆞ실 ᄉᆡ 쉬 ᄎᆞᄌᆞ

뎨왕조을창졔ᄒᆞ고삼군으로지위ᄒᆞ니기치엄숙은
일월을희롱ᄒᆞ고호연ᄒᆞ니추상갓탄지라뎨뎨날만
의남명의ᄯᆞ라쳔맛삼십이의유젼ᄒᆞ고젹격헤을
보비니남평왕니ᄃᆡ노ᄒᆞ샤육만쳘기을거나려ᄃᆡ진
을ᄒᆞ고바다보니좌편쳘기야라도독헌운곰이삽ᄒᆞ고
을입고용봉투고을쓰고쳥총마을놉피타고챵씨며
우편빅기아래ᄒᆞᆫ호연니머리예금자관을쓰고손의
산호치을들어시니위풍니늠ᄂᆞᆷᄒᆞ고얼골은현산
빅옥을ᄉᆡᆨ근듯ᄒᆞ고안치는가을물결갓고눈셥
은우나부안진덧ᄒᆞ고빅마금안을타시니옹모엄

풍이원근의쓰니난지라쥬왕이보건대ᄒᆞᆫ번싸와
손칠듯ᄒᆞᆫ지라교계웃고치로셔셔운을가라치니
가로대너는대원슈라ᄒᆞ면셔군병을총독ᄒᆞ리
엇지용열ᄒᆞ요쏘이ᄒᆞᆨ소을가라쳐왈너는이팔
쳥츈이요황구소아라감히젼장에두렵지안니
ᄒᆞ나야암커나네쳔명을통ᄒᆞ라여사대소왈나는대
사마평운무에사이평편이라ᄒᆞ도와주왕니란왈지존
의불니봇더도연작니절긴다ᄒᆞᆫ여시니진실노너을
두고내몸이도다ᄒᆞ고왕니친니장ᄒᆞᆫ대갬을도교
바로셔쳔슈을취ᄒᆞ여늘ᄯᅢᄀᆞᆺ셰로싸와삼십여합의

셔ᄒᆞᆫ지쟝뇌ᄒᆞ야말을두로혀다ᄃᆞ난니왕니젼셕ᄒᆞᆫ
야쟈도며호령ᄒᆞ셔날어사ᄃᆞᆯ을쳐쳐산산의노곱픠볼
유저날주왕니쟈도ᄃᆡᄒᆞ더니분듯ᄀᆞᆷ셤니진동ᄒᆞ며살
기ᄒᆞᆫ쳔ᄒᆞᄂᆞ무수ᄒᆞᆫ군병니졉ᄂᆞ니ᄂᆡ쇠저날주왕니
크게놀니곱픠ᄒᆞᆯ올ᄒᆞᆫ픠쳐치저못ᄒᆞ야ᄎᆞᆷ히분주
ᄒᆞ며날어사비로소보겁을늘고며다ᄃᆞ주왕을취ᄒᆞᆯ
지심ᄒᆞᆷ의쳐아ᄃᆡ픠셩산니민후ᄒᆞᆫ사주왕을잇곰ᄒᆞᆫ
면일졀주시지안니ᄒᆞᆫ시ᄃᆡ니ᄲᅵ봄을살여두면맛ᄎᆞᆷ니
후찬니롤지ᄃᆞ주게미올ᄃᆞᄒᆞᆫ효졀신을가다듬따실ᄯᅢ
합의산쳐잔ᄯᅥᆷ니변듯ᄒᆞᆫ대왕의머리ᄯᅡᄒᆞᆫ외나ᄯᅥ러

난지타칼끗티새여들고찍젼을허치니남문젹장즁
졸나다셕쳔수의께버친바되야논지라한번싸와남방
을평졍ᄒᆞ고본진의로도라와즁군을호졔ᄒᆞ니
졔장군졸ᄂᆞᆫ각고공을치하ᄒᆞ더라셕쳔수고공을이
여사의게쇠ᄒᆞᆫ니여사왈나난국가의너부신덕튁이
오니엇지소장의공이라ᄒᆞ오릿가여쟤주왈을뻐혀
시니원즁이요난ᄒᆞᆯ지서니이셰을다원즁을ᄒᆡ후
ᄒᆞᆫ을덜ᄯᅦᄒᆞᆷ미잇더ᄒᆞ니앗가셕쳔수을치며ᄯᅢ이날
이딤의군사도치여금남딤원즁을둘너싸고짐짓둔
문을막저날ᄒᆡ사일재별을거나졔쇠문의일르어졍

을너머셤문을열고셔쳔수을따자탐셰ᄒᆞ다짓치니
셰즁장졸니젼디지못할줄을알고일시예항복ᄒᆞᆫ
되인심니오히려살난ᄒᆞ여날여사죽새보국산섬ᄒᆞᆫ단
글존을새셔ᄒᆞᆫ즁의젼뎡할채군즁의만일빅셰을
한나히타도죽기난곳잇시면독을베쳐군즁의회시ᄒᆞᆫ
고져물을맛난곳면엽문ᄒᆞ다힘보을못ᄒᆞᆫ때ᄒᆞ더라
ᄒᆞ여일노빼난민니다ᄒᆞᆷ복ᄒᆞ더라직시궁궐을들
너싸고주왕의가솔을다자바온비임무활구십인이여
날핢께가두우고빅셰을진무ᄒᆞ고쳡셰을올미께날
ᄒᆞᆫ쳬되히ᄒᆞ다고때ᄒᆞᆷ찬ᄒᆞ사보좌을만니보니여잠군

을상사ᄒᆞ고왕의신체난왕여도장사ᄒᆞ시고그가속은ᄂᆡ감
사졀비ᄒᆞ라ᄒᆞ시다각셜이젹의체탐ᄉᆞ보ᄒᆞ되남만션우
만ᄒᆞ야ᄃᆡ병을거나려지션의범ᄒᆞᆫ다ᄒᆞ거날쳔ᄌᆞᄃᆡ경ᄒᆞ
사직시ᄌᆞ쳐을니ᄅᆡ와ᄋᆡ쳔수로ᄒᆞ여곰남만을체파ᄒᆞ
라ᄒᆞ여ᄆᆡ다잇ᄯᆡ예셰쳔수노모의별니ᄎᆡ기졍ᄒᆞ물듯
고직셔장ᄃᆡᄒᆞ야ᄆᆡ된장수을말ᄒᆡ여졍별ᄒᆞᄃᆡᄒᆞ옵소
쳐ᄒᆞ여거날산니침음ᄒᆞ시다가리학사장연의로부쳔
수을ᄒᆞ시고ᄃᆡ사마니쳥병의로ᄃᆡ원수을한ᄃᆡ장연
너죠쳐을빗자와직셔ᄒᆞ직수비ᄒᆞ고군병을거나려
남편의셔일으어죠쳐을졍ᄒᆞ니원수ᄃᆡ최ᄒᆞ야ᄃᆡ원수

션신을이여사을주어날어사샤도ᄒᆞᆫ디사마만신을장쉰수
을주고군명을홈독ᄒᆞ되군즁니더복엄숙ᄒᆞ더라장
쉰수ᄒᆞᆫ찬왈이쉰수소연셔상의로일직지혜난말셔니
와다장지모약은ᄋᆞ지못ᄒᆞ엿노라맛ᄎᆡ셔티군을모라지
쳐드러가니쳔우삼십만대군을ᄯᅵ나되고질을닥난지라
쉰수장쉰수을쳥ᄒᆞ야갑주을가쵸옷고ᄆᆞᆯ머리을ᄒᆞᆫ가지
로도라진젼의나아가니뷔풍니늠〻ᄒᆞ고의긔양〻ᄒᆞ야ᄲᅡ장ᄒᆞᆫ
돌ᄒᆞ니젹진장졸니바다보고칭찬왈니난쳔신니강림ᄒᆞ엿
더라양진니상합ᄒᆞ야변쟝출마할셔장쉰수난변장노화
ᄲᅢ티고사도유회을사도잡부니ᄯᅢ왕니ᄲᅡᆫ장의회ᄒᆞ믈보고대

포ᄒᆞ야진문을열고나오거날살펴보니멸니셰젼주만ᄒᆞᆫ산
고몸의금뇽포을닙고머문소을타고손의삼고창을들고바
로향원슈을ᄎᆔᄒᆞ여셔날이원슈보다가보검을ᄲᆡ여들고마
상의셔츔추며반왕을마자ᄉᆞ삼차진퇴ᄒᆞ더니졉광나밧
니ᄯᅥᄯᅡᆫ왕의머리검광을조ᄎᆞ마하의나ᄯᅦ시날칼셧티새
셰들고돈을칠ᄒᆞ난듯셰장을ᄲᅧ치고날을칠ᄒᆞ난듯복
잔을ᄲᅧ치고왕시츌몰ᄒᆞ니잔원슈ᄉᆞᄐᆞᆫ장창디검을들
고나문장졸을지휘무인지경가치츌살ᄒᆞ니피흘너셩쳔
ᄒᆞ고젹시예산ᄒᆞᆫ지라슌식간의삼십만되군을몰잘의고
물미ᄃᆞᆺᄒᆞ야지휘들ᄲᅧ쳐니할원슈신기ᄒᆞᆫ뇽밍을삼나셥

난지라칼을들ᄆᆡ젹쟝의머리츄풍낙엽갓고활을
자무면ᄲᆞ른살이흐르난별갓터여빨무부즁ᄒᆞ니
셜우의장졸니목을움치고ᄯᅢᆯ제두장수난쳔신니
하양ᄒᆞᆫ덧ᄒᆞ더라수일싱니여남방을평졍ᄒᆞ고쳠예
을솔어나라남방ᄇᆡᆨ셩을진무ᄒᆞ고사졸을상사ᄒᆞᆫ
고ᄃᆡ군을거나려회군ᄒᆞᆯᄉᆡ각도각관의일외여후ᄒᆞ고
도ᄇᆡᆨ셩을살피게ᄒᆞ니ᄇᆡᆨ셩니안돈ᄒᆞ고격뎡나
놀ᄂᆡ지안니ᄒᆞ더라황졔의얼골니황졔문무졔신을
거나려십니밧긔나와마질ᄉᆡᄃᆡ군니황오을난화ᄒᆞ얏
젼을쳐힝군ᄒᆞᆯᄉᆡ한낫도예셔오미업고졔장군졸니

일시에만셰을부르더라샹니크게깃거ᄒᆞ야두원수
의손을잡고왈경등니소연셰샹의로잇셔실어ᄒᆞᆫ졔
조잇시물얼니요ᄯᅵᆷ듣니한번북쳐남방을쇼멸ᄒᆞᆫ
고짐의근심을덜문다경의공이라ᄒᆞ신ᄃᆡ이원수복
지주왈폐ᄒᆞ의ᄃᆡ부신덕ᄐᆡᆨ이요졔장군졸의공이옵
고소신니무삼지조잇사오릿ᄭᅡ샹니ᄯᅩ장원수을위로ᄒᆞᆫ
여왈경니말니졔장의게ᄃᆡ공을밀우고도다오나아름
답고깃부도다장원수사은ᄒᆞ고어젼딜의신긔ᄒᆞᆫ고묘ᄒᆞᆫ
술법을열〃니후달ᄒᆞ니이원수ᄯᅩ장원수의공을아
뢰고ᄌᆞᆯ젼졔장의공을차례로주달ᄒᆞ니황졔크게

춍찬ᄒᆞ고이현뎐의도법부상셔겸대사마쳥ᄌᆞᄒᆞᆷ을
봉ᄒᆞ시고장ᄉᆞ쳔수도나부상셔겨ᄌᆞ후ᄅᆞᆯ봉ᄒᆞ시고
나문졔장은차례로봉작ᄒᆞ시고환관궁ᄂᆞ실셔빅모를
쇽은이현뎐을대쥬셔ᄂᆡ고은춍과부귀난셕ᄒᆞ더닙
뎌라부션수장연니봉작을밧자와도라가부모을보
온디시랑부쳐반겨쌀너얼말니즐지외보니모주야셥
세하더니디공을밀우여부사니도타와봉작을셰고뵈
얼졸을엇리씃ᄒᆞ야으되요환디장연니두변졀ᄒᆞ고디
쌀남빨은본디ᄒᆞ도톡이안니나고인심니쇼ᄒᆞᆫ강포한계
라엇지살아봉히을발라보리요ᄒᆞ다난이현뎐의시름한

묘츌노남빵을펄쳘ᄒᆞ고티끎을날유어도타왓나니다
현편비륙연ᄂᆞ약졀니ᄒᆞ도데싸흠을당하면효되왔
의요뭘니옛고바뎌을체쳐고뢰을살난젼흐엿시물
얼오고탄복ᄒᆞᄯᅢ기을날ᄯᅡ지안니ᄒᆞ더라이샹셰ᄉᆞ찬집의
도라와부모사당의비알ᄒᆞ고고동싱연평파유모을
보고실허ᄒᆞ더라이후로부터쟝샹셔와셔로연효
나서옵더라일러구러쳘의효말ᄒᆞ야사실고닥을찬가져
로화뢰마잠여화워남뇰츌은맛저살니요일ᄂᆞ은이상
셔와쟝샹셔십변ᄒᆞ야자다가쟝샹셔찬셥을여둔니ᄒᆞᆫ
노인ᄂᆞ와얼ᄃᆞ노디ᄲᅡ년이생도라ᄒᆞ거이와여아고집니냠

과ᄃᆞᆯ나려여도을바ᄃᆡ고지금ᄭᅡ뎟ᄃᆞᆺᄒᆞ니현곤니자상이살뢰
ᄯᅥᆫ어진비필을어들거시오ᄯᅩ니의연ᄒᆞᆫ을뉘도ᄒᆞ라ᄒᆞ거날
놀ᄂᆡ친음ᄒᆞ다가ᄭᆡ다르니남가일몽이라급피일어안ᄌᆞ
상ᄯᅢᆨᄒᆞᆫ뢰이영도난ᄌᆞ직의부친이나여ᄌᆞ다ᄒᆞ니고뢰ᄒᆞ도
다ᄌᆞ직의아히연켱니여ᄌᆞ가뫼심ᄒᆞ더니이현필니ᄯᅩ자다
가놀나거날장상셔불너ᄭᆡ와몽ᄉᆞᆼ을니로니이상셔졔셤
과갓타블듯고심즁의심ᄒᆞ나낫비칠류ᄒᆞ도ᄯᅧᆫ치산
여ᄒᆞᆫ고주연나우뉘왈몽미사눈허탄ᄒᆞ니밋지못ᄒᆞᆯ이
ᄒᆞ고뢰나현화의네외가친과동쳔동ᄯᅧᆫ너이실거시외니고사
ᄃᆞᆷ을ᄎᆞᄌᆞ여ᄌᆞ잇난가보소셔장상셔답왈소뢰앗가회

미ᄎᆞᆫ줄의감관보나왼연나혈의부친이여날그릇보시
고히ᄒᆞ다ᄒᆞᆫ노라현편나박장디소활혈어말삼나가소옵
다니의누섭시은실여나와셜혹맛션들혈의가소되야
장상셔다맛웃고몬사쳐탄ᄒᆞᆫ줄만알고다시유의쉬안니
ᄒᆞ고현편의변복ᄒᆞᆫ줄을아지못하더라이상셔ᄌᆞ연심
라불평ᄒᆞ야엇일의집쇄도라와산소하야티락사을길
고변저이단이든안니ᄒᆞ나문쳔의께다불ᄒᆞ야만죠빅관
녀비역부절ᄒᆞ고쳔ᄌᆞ잘도면ᄒᆞᄒᆞ야연명ᄒᆞ니도로쳐별
되ᄒᆞᆫ물이세져못ᄒᆞᆫ더라이뭇은줄당의단니다사연편을
어로딴쳐탄식쌀네기잠니장니키회되편이와더도덜도

딸고날만치발힘ᄒᆞ여라ᄒᆞ며실더ᄒᆞᆫ을따지안니ᄒᆞ니유모
뎟히셰죵용니엇다소ᄃᆡ쇼져조졍의왕니ᄒᆞ시면뉘신물니
맛당차더잇사디쌀맛당ᄒᆞᆫ살듬니엇고없(업)고며여살번안
니라유의치안니ᄒᆞᆫ예난니엇지살니쇼유모ᄯᅩ발삼을나게
니차사엇자오ᄃᆡ당상셰난인즁호길니라쇼져맛당히빅년
가기블졍ᄒᆞ며엇더ᄒᆞ오닛가상셰발연ᄃᆡ노왈셔메난일쳬
한말다시말나부모심께(기)셔ᄒᆞ되신살을둘터셥쳐납아의
봉을쳐탁ᄒᆞ야벼살니몸후직열의니듯엇고녀ᄌᆞ의도태
을여곤치오랴타국가의더사ᄒᆞ고몸나변ᄯᅢᄒᆞᆫ니엇지ᄒᆞ고뎐니
여ᄌᆞ되여가부될ᄉᆡ즐두터요ᄒᆞᆫ불ᄯᅢ비난ᄌᆞ도죵심고죄

하난니그러ᄒᆞᆫ뜨즐두어샹의나셔막ᄒᆞ더쇼셜파의소ᄃᆡ
을셜회고밧괴도나가니라갈셜이사의연괴의나히십세
의당ᄒᆞᆫ지라그ᄃᆡ씨의고집니심ᄒᆞᆫ물보고뎐말니ᄃᆡ겨죵용
ᄒᆞᆫ셔ᄉᆞᆯ타뎐단긔유ᄒᆞ되죠시듯지안니ᄒᆞᆫ더라십세
너달ᄒᆞ되말셔ᄒᆞ연니볍니드더놉고이지못ᄒᆞᆫ게날
쳥조두드세고놉니사어의을보니아볍을다ᄉᆞ리고만
죠빅판니다날노볍샹을못더라일ᄂᆞᆫ잔상셔바도
볍소의드더가니이상셔조금착회이셔만셕을의지ᄒᆞᆫ
고술을보지날잔상의길저ᄒᆞᆼᄉᆞ게ᄐᆡ안지며활렴니
모날은엇더ᄒᆞᆫ쇼ᄅᆡ쌀나ᄒᆞᆫ덧ᄒᆞ나모히저두름니잇

고수쪽너셜너소너살세쓸바다쉬못ᄒᆞ티도다잣산셔ᄂᆞᆯ
니여머리를반지며손을집고왈혈너엇지일쳔불길ᄒᆞᆫ
딸을ᄒᆞ나요이산셔잣산셰더부뎌교도죠빈ᄒᆞ온지칠
팔연니도되옷깃셜연ᄒᆞ아천자리예안고소티을연ᄒᆞ야
출입을ᄒᆞᆫ가지로ᄒᆞ되손을쇄도잡계산시ᄒᆞ야더니
너날죠뎐너손을자부더심즁외놀납고더속솟구ᄒᆞᆫ
야낫빗쳘변ᄒᆞ며미우를쑹기더고불산ᄒᆞᆫ기운을보니
되잣산셔는다만신음ᄒᆞ시도고더ᄒᆞᆫ가너기더라예더날만
외차도엇셔출사ᄒᆞ더니하도산샹을에드니부모을며리
유쌀네셔즈외몸외도일혀다셔고치ᄒᆞᆫ일을칠ᄒᆞ냐ᄒᆞᆨ

ᄂᆞᆫ부모을ᄉᆡᆼ각ᄒᆞ면효도극진ᄒᆞ던나와골희지안이ᄒᆞ면
자식의도리엇덧타ᄒᆞ리요찬디상셰미밥고켜하다가
셔다드니남가일몽니라부모의영음니귀예질ᄂᆞᆫᄒᆞ고
면목니눈의암ᄂᆞᆫᄃᆞᆺ지라ᄯᅢ압니자연감동ᄒᆞ야눈물니
솟면의ᄭᅢ듯ᄒᆞᆫ줄을세닷지못ᄒᆞ더니날니발고ᄯᅢ유모
드러와간밤의ᄒᆞᆫ셤을이르니여차〻ᄒᆞ더이다드ᄅᆞ되상
셰의셩과갓탄지라상셰비록발셜치안니ᄒᆞ나쳔발
문천각의셰잔삼셰와찬ᄭᅡ지도셩사던일을싱각ᄒᆞ
교녀옥갓ᄭᅵ안니ᄒᆞ더라엇셰예각노유곤니되연을비셜
ᄒᆞ고질길시고ᄀᆞᆷ빅관을다쳥ᄒᆞᆯ시니삼셰마지못ᄒᆞ야

나아가니당조열좌ᄒᆞ여거날상셔좌중의예ᄒᆞ고안저ᄂᆞ
슈용니소ᄉᆞᆯ음날편연은촬산의면을ᄲᆞᄅᆞ와티젼시
졀을듯ᄒᆞ나졀기난일니라빅관셔ᄃᆡ진니엽거날쳔
후의병옷시을ᄆᆞᆯ뢰병들무토반니쳥ᄒᆞ면효쇄여
리난고로여러슌쳥ᄒᆞ여난니어져쳔후의신식을보
젼ᄯᅴ이셩니활달ᄒᆞ고예골니가을물결가ᄐᆡ여효음도
ᄲᅧᆼ셕니엽나이다ᄒᆞᆫ디상셔사ᄃᆡ왈좌관거연부ᄅᆞᆷ병니
잇난지라유공니왈날아거신바라비록차도잇사오나보리
ᄃᆡ윤동ᄒᆞ면복발ᄒᆞᆫ기로연쇄의일직븐티치못ᄒᆞ오
나잇제츙병ᄒᆞ미잇사올ᄯᅡ사에사졍효소ᄉᆞᆯ매후엣

지사ᄅᆞᆷ을눈업시더기난요산식은눈빗갓고단순은
연께세ᄂᆞᆫ듯ᄒᆞ여무르녹난빗치취ᄃᆞᆼ화야참이샹ᄒᆞᆯ
머금가희여조흠도별식나엽ᄯᅢ날엇지별들어다ᄒᆞᆯ너
요샹께낫빗쳘변ᄒᆞ고되찰되잘부족ᄒᆞ여면ᄒᆞᆯ옛
지압훈되엽시ᄒᆞᆯ별ᄒᆞᆫ태요사ᄅᆞᆷ을처ᄐᆞᆫᄒᆞᆫ인물너라
ᄒᆞ난요ᄒᆞᆯ손참피ᄒᆞ야연쳑의참여회못ᄒᆞᆯ니로소어
야ᄒᆞ고직서나가ᄯᅢᄒᆞᆫ세날쟝샹ᄭᅦ덧희엿다가소되을
자바안치니잘시랑니ᄒᆞ활노무벼샬니나차오나이현후
의부친과불우타작위호의논ᄯᅢ고부쳡의동별노
新ᄒᆞ야노부의ᄯᅢ연회믈처불되ᄯᅢ에더ᄒᆞ요좌존

너우위가로되깨ᄒᆞᆫ일이로다 쳔관니다모든즁의연소
ᄒᆞᆫ말ᄒᆞ되ᄎᆞᆨᄒᆞᆫ관니다수삼되러젹고며살ᄋᆡ거ᄉᆡ돐
몸나만ᄒᆞᆫ나의닐나ᄒᆞᆫ여서잠시란파이시랑나로관미ᄉᆡ
너쳥ᄒᆞ후며살나비로놉다ᄒᆞᆫ예오진실오아드음답기
몯ᄒᆞᆯ바ᄒᆞᆫ나너ᄲᆞᆯ니ᄶᅦ예ᄒᆞᆫ소ᄭᅦ잠시랑나우음을ᄯᅢ
웃고에생ᄭᅦ을칠ᄒᆞ야일외되ᄒᆞᆫ팔나랑돌ᄒᆞᆫ미안나
파에딘과삭연과끄도지별할생안이라도돈문신의로
몸연의든파ᄒᆞ야며살나사ᄒᆞᆫ돈담몸이로관로의스피미잇
거이와좌즁말삼니일허덧ᄒᆞᆫ니쟝차실끼칠니뵈이상ᄭᅦ
잠관우의나엄윤디왈쳔ᄌᆞ도무효관사름은뢰을뵈

논회압나흔미는하물며소싱나희물니엄사오나희블을
일희시면죄을담흔되나사시랑나디왈유상노난흔죄
군신나여상흔벌흔단말만듯고노흔야그러흔나사례소
샹흔지라발우십비을잡탈이노하산쳐유의며갑왈존
공발상븟사오면소청도용회핫나이다유광노도디신
이여나와나뢰소싱의쳐놀흘생안나라이저유공과소싱
나다티랑사다작위도흔동품때에날디신을자쇄할진
디소싱나무상죄신난벗사훈공나비로구존잡이시나스
가의쳐함과달나호연차의죄칙을몽박흔라고
산자쳐별작흔나여난소싱을다사터니산나탄내외며

샐을업수이너기며로소이다소원니비록욕잔ᄒᆞ오나
족키ᄒᆞ더위화ᄒᆞᆫ일치산니할기버여존공ᄒᆞ시난말
삼ᄃᆡ로본칠치못ᄒᆞᆯ가ᄒᆞᄂᆞ이다사색ᄇᆡ못자와중
엄ᄒᆞᆫ신영을셔ᄒᆡ혜니와조당예난공쳬을조쾌ᄃᆡ
너예무셔당을ᄃᆡ신을업수너기서난일노벌을
더ᄒᆞ야이십비을더ᄒᆞ리니다ᄒᆞ니좌즁니다박잔ᄃᆡ
소하더다장앙셔노쌀쳔후ᄂᆞᆫ엳ᄭᅢ이갓쇠말삼을
ᄒᆞ쉬난요웃낯이말을드리니소쳐와ᄂᆞᆫ삽연쳔ᄒᆞᆫ결
읫와동방읍쳐ᄒᆞ야ᄢᅵ삽니동굼이로ᄃᆡ오날말삼
운소심과다르도다ᄒᆞᆫᄃᆡ이후짐소뭄답ᄒᆞ더니문

듯엽용(ᄃᆡ월)[견식] ᄒᆞ고 쟝의 당좌젼의 나아가 ᄉᆞ민을 공슌
사졀발소셔 ᄒᆞ니 ᄎᆞ공을 필만ᄒᆞ미 업ᄂᆞ다 소연졀기예
머근 일ᄋᆞᆯ ᄭᅴ어디 못ᄒᆞ미 날니 실막ᄒᆞ오니 불상 황공
ᄒᆞ샤 뎡셩ᄒᆞᆫ 졍을 감이 ᄎᆞᆷᄒᆞ나 이긔ᄒᆞᆫ 디쟝이 탕운
본디 쳔ᄒᆞ 쟝부라 ᄒᆞᆫ 이우워 갈ᄂᆞ노디 일셰치 ᄒᆞᆫ을
셧지 패졉ᄒᆞ더고 ᄒᆞ너 쟝샹 쳐낫 뵛 셜 블키고 가묘
뎨 이후은 니애 부친을 별츄ᄒᆞ다 ᄒᆞ시니 니홀을 노이
후의 발삼니 맛당치 못ᄒᆞ나 이라 이상셔고 ᄯᅢ우 쉬ᄉᆞᆯ
가치우 슌도다 쳔의 가친은 니의 맏친 과믈 유신니여
화에 뫼ᄭᅦ 곤논 외로 쇼ᄅᆞ니 ᄭᅢ 뫼ᄒᆞᆫ야 별츄을 먹의 ᄯᅥᆫ

위친ᄒᆞ미나엇지ᄌᆞ열의고ᄒᆞᆯ을ᄉᆡᆼ각지아니ᄒᆞ며쳔ᄂᆞ
후ᄯᅩᄒᆞᆫ벌우을먹어스ᄉᆞ도쳬면을빗고와노부의ᄆᆞ
암을불쳔쳐ᄒᆞ나뇨이후담왈그러치아니ᄒᆞ도여이다오
날〻셜연참은희니티졀ᄒᆞᆫ기도ᄉᆡᆼ교을빗자와들
기려ᄒᆞᆫ게날두어순빈을다못ᄒᆞ여셔삼곱나참노ᄒᆞ시고
윤펄니상헐ᄒᆞ야ᄎᆡᆨ셕니불졀ᄒᆞ야살기ᄲᅡᆫ단ᄒᆞ여
상파니ᄒᆞᆫ파의뎌수욕곰칙을참혹기빗ᄂᆞ니엇셰가
지감ᄒᆞᆫ젹국니다시엽실지라ᄎᆡᆨ상니벌ᄆᆞᆯ을먹난니
칠여욕열ᄒᆞᆫ물고희더이지말지어다좌우더불ᄒᆞ고강
상쳐도노기을풀고도〻쳐뇌위졔ᄒᆞᆫ더라이후좌우로

ᄒᆞ며금술을무어뎐ᄒᆞ야다서너ᄇᆡᆨ관너셜노모다보ᄂᆡ
아조꺼놀너고잔시랑나즙최이러그잔을잡고우위왈
현후편일의한잔술도못ᄒᆞ더니연ᄒᆞ야열누잔술
마시니엇진연고요노부의발섯티난일이니노부을
도타보쇠안니ᄒᆞᆫ배보다쳥쳔티노을존되고ᄒᆞ집지
말이어다드티여술잔을아사너이산세발세고꺼취
ᄒᆞᆫ야티랍지못ᄒᆞ고ᄒᆞᆨ연을명ᄒᆞ야수다를저ᄒᆞᆨᄒᆞᆫ
너당ᄒᆞᆫ의나해수다예오ᄂᆞ니수십ᄒᆞᆨᄒᆞ너ᄇᆡᆨ모환월
또ᄒᆞᆫ오위ᄒᆞ야갈시좌ᄒᆞ너쳠세대쳔ᄎᆞᄒᆞ고장시랑
너그아달ᄇᆞᆯ명되믈책ᄒᆞ고유각노ᄂᆞᆫ심이불쾌ᄒᆞ야

흥미사젼쳐엽고졀어사도ᄯᅩᄒᆞᆫ황공ᄒᆞ야좌불안셕
ᄒᆞ더이난이현필과가탄저상이나연어준졀ᄒᆞ고혀사
강직ᄒᆞᆫ기로쇼쳥니오여뎍결ᄒᆞᆫ난바쇼쳡고ᄯᅩᄒᆞᆫ흠
쎄져신이타일시취흥의취ᄒᆞᆷ니만발ᄒᆞ야희흥
의로말ᄒᆞᆫ다가ᄯᅢ산ᄒᆞᆫ여짐짓벌주을먹고로다가
너그불쳑ᄒᆞᆫ기상을[illegible]며염예ᄒᆞ야잔채을벌작
파ᄒᆞ고흣터져가니라ᄆᆡ일의잔상셰여후부즁의
이르니이후ᄒᆞᆫ번ᄒᆞ고나와보제안니ᄒᆞ게날칼상쇠
ᄒᆞ도세사죄ᄒᆞᆫ데이후ᄯᅩᄒᆞᆫ졀쥐을지여보내니잔
상쇄ᄯᅩᄒᆞᆫ분노ᄒᆞ야 도라가니라 각셜이젹의ᄒᆡᆼ젹

의유보소ᄒᆡ고집ᄒᆞ물고계ᄂᆞᆫ심ᄒᆞ여다시리유쇼ᄒᆡᄒᆞ되
그ᄂᆡ셔이쥰졀ᄒᆞᆫ기로감이어모말도못ᄒᆞ고ᄇᆡᆨ가지로ᄉᆡᆼ
각ᄒᆞ고장ᄉᆡᆼ셰부즁의니르니서ᄃᆡᆼ나즁현의안ᄒᆡ[illegible] 다가 이
후에유모물보고반겨ᄭᆡ아셔의ᄃᆡ외ᄉᆡᆼ곰무ᄃᆞᆼᄒᆞᆫ셔야
되여다만졀ᄎᆡ로ᄒᆞᆫ에음보내고ᄎᆞᆷ변ᄒᆞ고나지안니ᄒᆞᆫ미ᄉᆞᆯ
ᄯᅥᆫ니오ᄒᆞ더니오날이러ᄒᆞ기난엿진연고로유모두변졀
ᄒᆞ고엿자오되과연우리ᄉᆡᆼ곰은못우리위소ᄌᆡ뎜편이라ᄒᆞᆯ
셕거남과달나여화뇌남ᄒᆞᆫ사ᄅᆞᆷ인고로ᄉᆡᆼ곰나간졀
이친ᄎᆞᆸᄒᆞ시ᄃᆡ니졈외렬ᄌᆡᆨ니탈노할가염여ᄒᆞ기로
엿지실졀을발ᄒᆡᄒᆞ리요ᄒᆞᆫᄃᆡ장션니말을듯고얼변

을납고열변반가곱리문왈유탄아그어인말이요유도
우음물떡읍고좌우을살펴말을니지안나ᄒᆞᆫ께날산셔
시다타따삼이조께떨돌ᄒᆞ야좌우을리오고유모을은
곤나현ᄒᆞ야각가이산채고쟁의로물외나유모조졔의
좀신되사을코꺼셤에ᄒᆞᆫ낫지라젼후사졍을낫〻뇌고
ᄒᆞ묘샤소져외고집너여차〻ᄒᆞ오나삼품은아모죠록
그기문뜨절리슈ᄒᆞ야뵈션ᄭᅢ기을되지소셔ᄒᆞᆫ대샨셔
둣기을다ᄒᆞ되열헛듯취ᄒᆞᆫ듯험읍얀구의워산을리
ᄯᅢ탄식왈유랑〻〻아이말너실노오리야뵈일지좌의네
엇지너을쇼기나야이후난쇼젼굼신이뵈날엇지일굼

일너잇시이도ᄒᆞᆫ데유모엿ᄌᆞ오ᄃᆡ예젹목난도좃구나
찬일너잇거든ᄉᆡᆼ공너잇지우리쇼져을고ᄒᆡ더기신난
엿ᄌᆞ와ᄉᆡᆼ쇠이ᄋᆞ키ᄉᆡᆼ각나ᄊᆞ왈과연올토다이졔야ᄉᆡᆼ각
ᄒᆞᆯ이도다너의상ᄉᆞᆼ너낫과동갑의도쳬도혹키사답ᄒᆞᆫ
되졍일손잡난일너셥고졀을문뎐각의셰숙쇼ᄒᆞ여뎌
변ᄒᆞᆫ여시ᄆᆡ좃시속옷벗난일너셥고닉ᄉᆞ혹져츈을
자부면눈셥을ᄶᅵᆼ기러고놀닌빗치잇시되나난졔의
따암너고졍ᄒᆞᆫ제도고던ᄒᆞᆫ도다ᄒᆞᆫ야더너엇지일죄ᄒᆞᆫ
졸을아ᄅᆞ시되요ᄇᆡ빈다시계고도셰찰봄을바드리
라유모웃고의논을파ᄒᆞ고도라가너라ᄉᆡᆼ각ᄒᆞ여ᄯᅡᆯ

을듯은후도난여관여취ᄒᆞ야만번이나싱각ᄒᆞ되
묘쳡을잇지못ᄒᆞ더니어든날쳔ᄌᆞ께맛쇼되요셔
외어쳡경니무단니츌변ᄒᆞ고나지안니ᄒᆞ오니무삼
연고온지모로거니와근일의문쳔각외쇠곤사만ᄉᆞ와
쳡경의도리붓더외논할업어만ᄒᆞ옵게도앙달ᄒᆞ
나이다ᄎᆞᆫ디환쟤셔리ᄉᆞ직셔이현경을명ᄒᆞᄉᆞ신뉘
현경마재못ᄒᆞ야절하의일의셔복지ᄒᆞ계달삼나갈
다사뎨명은짐의우혹ᄒᆞ야ᄒᆞᆫ쇼타국사을도보리산
내ᄒᆞᆫ온잇진연고요쳡경니메러엘들에셔죠씰죠신
나저번뻘나아짤ᄒᆞᆫ효엽사쇤보타죽사을졔ᄒᆞᆫ엣사

오나신의죄만사무쳑이로소이다섭니다시최ᄒᆞ여
왈덜은졀문신하도대양별들다춘달ᄒᆞ고벼살을
잡시지안니ᄒᆞ니비밀의안삭을보끄되변식이셥낙
지다젼일곤을쳐각지안니ᄒᆞ면되만ᄒᆞᆫ죄을닷
ᄒᆞ리도마조금도되만깨말고잠번ᄒᆞ다ᄒᆞ신되일번
두렵고실번난쳐ᄒᆞ나감히뎔은말삼을엳오끼못
ᄒᆞ고대만돈수칠ᄯᆞ롬일니다직시물너와십변ᄒᆞ
니집의나갈거ᄒᆞᆫ니엽난지라삼사차연암ᄒᆞ더라과
셜잇세예잠산쳬셔번을들잇난지라되학사칠
인즁외이현뎡니잠번ᄒᆞ기노고넘분며졋사롬을

흘이쥬쳐그끼돔을살펴보니속모화뎌참파ᄯᅢ로(도)
단아ᄒᆞ온졀일ᄋᆡ심싱니보던셰와여뎌흔나뎌ᄒᆞᆫ지
라졍신나황홀ᄒᆞ고ᄢᅵ몽니아롬다와시샹도사람즁
텰쳐어지못ᄒᆞ야말삼을낫지게ᄒᆞ며왈쳔졉니엇졔
싱쳐ᄃᆡ일최다시두뎌운(운)졉을열시그쳐물노말마암
야일졍텃무졍ᄒᆞᆫ시나사이졔집짓구츅고순ᄒᆞᆫ니
그졍샹나가련ᄒᆞ고연모간졀ᄒᆞ니현젼니그쳬면을샹
가ᄒᆞ야참음앙즁의마지못ᄒᆞ야몸을도(두)로혀잠확사
을칭ᄒᆞ여쳔싱이졉젼은본ᄃᆡ필부로ᄆᆡᆺ참네연인
의유풍을이여여러존공을모시고외남니지음을참

예ᄒᆞ나엇지감히괴도잇다ᄒᆞᆺ데요얼쳐ᄒᆞ무로불감ᄒᆞ
여절괴ᄒᆞᆫ난골을보니셔더나오날존곰나이러ᄒᆞ시단복
ᄒᆞ시니쳘천디엣날지기지의을샤회말의소쳐ᄒᆞᆫ대장
후곳쳐돈수사뎌ᄒᆞ고셔로담화ᄒᆞ되유화ᄒᆞᆫ말삼ᄒᆞᆷ연
ᄒᆞᆫ지라아무리유의ᄒᆞ야살피되예존의티도업난지라
십문괴히여기나두어날을ᄒᆞᆫ티엇쇄도조곰도자식을
보이지안나ᄒᆞ고올을일우고시을리의되고친ᄒᆞᆫ말
한ᄒᆞ탄졔오말지네미날나심미더우되어후ᄒᆞᆫ삼파의
을벗디안나ᄒᆞ고눕거날장ᄒᆞᆫ학사의심을참지못ᄒᆞ야이
로티형의가삼가온데기치ᄒᆞᆫ졈너잇다ᄒᆞ보니고마뤼올

ᄒᆞᆫ잇기이후소왈니데엇지ᄒᆞᆯ텬졍니잇시되요잠착ᄒᆞ사답왈
혈너ᄀᆞᆫ르도다엇지붉ᄂᆞᆯ을외친니소ᄒᆞᆫ나요쳘귀데ᄒᆞᆫ벅
귀결료자ᄒᆞᆫ도타이후어놀ᄒᆞ야두셔번발뎐ᄒᆞᆫ니잠착ᄉᆞ
나아가우뎍의ᄒᆞ보타ᄒᆞᆫ제날이후ᄉᆞᆫ뫼노ᄒᆞᆫ번밀치니조되
에새구려졔다가데우실에서며ᄯᅩ알고져ᄒᆞᆫ제날이후그수삼
ᄒᆞᆫ물보고ᄆᆞ음의크게놀니직시일어시며일로되헌혈니쇼
졔도엽부녀ᄭᅩ우ᄒᆞᆫ연지셥셔연니타엇지오열ᄒᆞ뎐니호ᄒᆞᆫ
허물ᄒᆞᆯ못고엇지일엇타시ᄒᆞᆫ나야잠착ᄉᆞ이밀ᄒᆞᆯ들ᄃᆞ리아
모되실작ᄒᆞᆫ여도달니난알도되쇄난지타니맛당히들은되로
이ᄅᆞ면알도이잇시더타ᄒᆞ야의관을졍히ᄒᆞ고안셕을고

쳐가로되너혐의로더부려관포의사고을허ᄒᆞᆫ지오타더니
이졔야드르니형니남즉안니라옛졔목난의일을효칙
ᄒᆞᆫ다ᄒᆞᆫ면고실상을일고졔ᄒᆞᆫ노라ᄒᆞᆫ디이후이말을들
르되간답이셔늘ᄒᆞ나안ᄉᆡᆨ을고쳐졀다이ᄒᆞ야가로되이
졔쳔형의말삼을드티니소졔시사로실죠ᄒᆞᆫ을지닷지
못ᄒᆞ더로다소졔쳔형의로더부려입번니오다되이일더
ᄒᆞᆫ말을듯지못ᄒᆞ야더니이만형니소졔로더부러여ᄌᆞ라ᄒᆞ
너실노졀도안니요졔ᄒᆞᆫ날을교로미ᄒᆞ야뎐어지못ᄒᆞᄯᆡᄒᆞ
니로다곳치두텹던안니ᄒᆞ거니와아지못지라엇더ᄒᆞᆫ사ᄅᆞᆷ나
일천찰당ᄒᆞᆫ말을쳐다려ᄒᆞ더요황산쇠일분도요동ᄒᆞ리

산니ᄒᆞᆫ물보고장신장의ᄒᆞ여쌀과연달은사ᄅᆞᆷ의딸내산니라
혐의유모ᄉᆞ날가되여ᄌᆞᆷᄂᆞᆫ〻ᄒᆞᆫ서에들은말니오니혐니엿지살
졈을고이고날ᄉᆞᆯ을도로혀쳐많다ᄒᆞᆫ오니실노졈도만니쇼졈니
진실노남ᄌᆞ면효져이와만일그ᄅᆞ치안니ᄒᆞ면엿지음양을밧
고와실셜을가라보고임군을소이며세상을늘밀니여ᄀᆡ조곰
도리란ᄒᆞᆫ이셤나요아직늘일어ᄒᆞᆫ거나와두렵건디ᄌᆞᆷ신독
룩세상을쇼기라이학사고디우여쌀피희ᄂᆞᆫᄒᆞ다장혐의
이말이여보날불각의날노ᄒᆞ여남화위여ᄒᆞᆫ다ᄒᆞᆫ니엇지가
소옵지안니ᄒᆞᄅᆡ요혐의염에날엿덧심ᄒᆞᆫ니ᄂᆡ〻실여즉호
다ᄒᆞ고혐ᄌᆞ여산소ᄒᆞᆫ야며살을갈거선니 그뒤난더무근심의

말나장학사그ᄒᆞᆫ졀ᄒᆞᆫ물보고다시말을부치지못ᄒᆞ야쟈
한심의도써허실을알고져ᄒᆞᆫ나본ᄃᆡ이학사난여역니과
빈ᄒᆞᆫ여천병만마즁의쳑장의말이뼈히기을방즁물갓
치ᄒᆞᆫ난지라엇지써쳬속유약ᄒᆞᆫ여ᄌᆞ로ᄯᅥ부텨의논갈이
요장학사ᄯᅩᄒᆞᆫ문무겸젼ᄒᆞ야심상ᄒᆞᆫ무관내산나도대
이학사의용역은못지못ᄒᆞᆫ난지라시사로당치못할줄
을알고감이나아가지못ᄒᆞᆫ니이학사금침을덥고자되세누
어자약히자ᄂᆞᆫ지라심즁의ᄂᆞ다롬을이기지못ᄒᆞᆫ더라우
일후의쳔ᄌᆞ이현펑을후원의도불디시졀을두고
글쓸지의챡ᄒᆞᆫ시너운구쳡ᄃᆡᄒᆞᆫ냐써옴이너생너남필

의총찬ᄒᆞ시고ᄉᆞ랑ᄒᆞᄉᆞ입엇ᄂᆞᆫ 은휴ᄌᆞ젹젼의와옥
뒤울쥬시니ᄭᅩ두ᄉᆞ은ᄒᆞ고즁일둣ᄒᆞ보ᄒᆞ가날리져
물미쥭소도도라와ᄂᆞᆯ련니쳥신여질ᄒᆞ야수죡이셜
니여괴울(운)울수십지못ᄒᆞ고안ᄉᆞ올ᄉᆞ더지못ᄒᆞ니이
난ᄒᆞ날니ᄲᅡᆫ다시음ᄡᅡᆫ을소기ᄭᅦ보ᄂᆞᆫ데판단ᄒᆞᆫ신ᄆᆡᆼᄒᆞ니
다ᄒᆡᆼᄒᆡᆺ니셥사여을남장ᄒᆞ야우회로ᄎᆡᆷᄉᆞ올
쉼기교아타도만효박관미며사회박셤니다남ᄌᆞ로
살고며살을곤ᄒᆞ뫼쳐ᄒᆞ고곤은효졀원ᄒᆞᆫ니되엿
난ᄒᆡ하효ᄒᆞᆫ일너엇지찬ᄒᆞᄒᆞᆯ완젼ᄒᆞᆫ며ᄉᆞ도졀가의현
졀니타박연가기을민뎍뫼도박경티고별쇄뫼물ᄒᆞᆫ

되장ᄅᆞᆨ하디몯ᄒᆞ야습ᄀᆞ리약을ᄡᅳ니오ᄅᆡᆫᄌᆞ무ᄉᆡ졔
우졍신을수삼ᄒᆞᆫ난졀ᄒᆡ뭇도요구산ᄒᆞᆫ뎐ᄉᆞ별
셰ᄎᆞ도엽고졀ᄂᆞ침ᄌᆞᆼᄒᆞ야식음을쳔폐ᄒᆞ고문셔
을살피지못ᄒᆞ야시ᄉᆞ도폐ᄒᆞ야의리쳔ᄒᆞᆫ날다려ᄒᆞᆫ별
ᄒᆞᆫ다ᄒᆞ더니이번은별니실상치안니ᄒᆞᆫ니여난ᄒᆞᆫ날니
되이더기시고귀신니날을죽기화ᄯᅢ로다니의뼈살을
생각ᄒᆞ면엇지ᄒᆞᆫ심치안에하리요ᄯᅩ장연니의심을
더ᄒᆞ야응졉고졔ᄒᆞ니평신ᄒᆞᆫ셰라도괴롬거든울물
며별쳬일처ᄒᆞᆫ즁의고리박ᄒᆞᆫ물엇지낤ᄒᆞ리요빈
셕을옴겨조리ᄒᆞᆫ말(단)갓지못ᄒᆞᆫ다ᄒᆞ고지질을내소

와표을쓰려ᄒᆞ니손너ᄆᆞᆯ니여셜ᄌᆞ을못ᄒᆞᄂᆞᆫ지라잠학
사고뎌돔을보티마음니자연감동ᄒᆞ야눈물을머금고슬
허ᄒᆞᆫ물나지안니ᄒᆞ더라직시기사ᄒᆞ야이쳔셩의별쳬위
티ᄒᆞᆫ물야도로니삼니들드시고ᄒᆞ괴ᄒᆞ시되나가쳐효
때ᄒᆞ여낫거던직시찰직ᄒᆞ다ᄒᆞ신데ᄲᅵ황사집의로나
팔서잠학사고ᄂᆞᆫ을잡고듬을어로만져갈노더혈너날
엿닷뷔중ᄒᆞ시나소쳬의마암나아득ᄒᆞᆫ지라혈은니의
ᄉᆞ졀살거서나얼현닷간졀ᄒᆞᆫ물닥지말나ᄒᆞ고오살슬
트고집박ᄒᆞ야보ᄅᆞ야ᄒᆞᆫ게날혀편니잠연의기석을보고
스샤로별ᄒᆞᆫ의혀아려라야ᄒᆞᆫ기덕의로막지못ᄒᆞᆯ줄을알

고ᄂᆞᆫ셤ᄋᆞᆯᄯᅳᆯ그리고ᄆᆞᆯ삼ᄋᆞᆯ가다듬아가도디쳔현ᄂᆞᆯ챗
탓천연ᄒᆞᆫ새니은혜을엇지이지리오날별즁의외
풍을새더난이출빌너쉬올지라셕난셔라지닐고졍삼ᄒᆞᆫ
소쳐ᄒᆞᆫ고손을셜힐고죠편니얼어난니좌우도희여ᄅᆞᆷ집
의도나오니라각결잇ᄉᆞ예이후집의도리와유모ᄅᆞᆯ불너
크더새지죄쌀물묫사ᄅᆞᆷ니ᄯᅳ졀ᄒᆞᆫ변졀ᄒᆞᆫ고다시고죄
면ᄯᅢ읍너요약ᄒᆞᆫ일어너니부친임ᄀᆡ실졔부험이몸너
되엿고ᄒᆞᆫ물며부모도박지못ᄒᆞᆫ엿ᄀᆡ날뉘라셔너의쳘쳑
가단ᄯᅢ음을회심ᄒᆞᆫ더오디날늘근거시족히너의구든ᄉᆞ
셜짐작ᄒᆞᆯ게시여날엇지잠착사다톄니쇄근본을일더

날노ᄒᆞ여곰욕을보미나뇨이졔샹육ᄒᆞᆫ은혀로말다야다
죄을주자양ᄒᆞᆫ거여와다서난일현일나엇시면줄죄을닷ᄒᆞᆫ
디라ᄒᆞᆫ디유모학사의임숙ᄒᆞᆫ물보고모ᄃᆡ두대왈ᄒᆞᆫ말
도디답지못ᄒᆞ고물너나라이착사변니졉ᄂᆞᆫ집ᄒᆞᆫᄒᆞ야
우월니지네ᄒᆡᄂᆞᆫ도업난지라쳔ᄒᆞᆫ모디ᄀᆞᆫ심ᄒᆞᆫ사여와도ᄒᆞᆫ여
곰변ᄲᅦ을보라ᄒᆞ셔ᄉᆡ이ᄉᆞ동의ᄂᆞ술운엇ᄉᆞᆸᄂᆞᆫ편작과갓탈
지라ᄒᆞᆫ번ᄃᆡᆨ을보면ᄉᆞ동의ᄆᆡ음을보올지시업고약을서
혐ᄒᆞ면효험업난일니업ᄂᆞᆫ지라이날황명을밧ᄌᆞ와이
후분의갈서잠상세도ᄒᆞᆫ가지로드ᄃᆡ마병을볼ᄉᆡ이셰예
션결나히십삼세라읍ᄂᆞᆫ품도와식ᄂᆞᆫ기실니현필ᄉᆡᆼ

로더부러다ᄃᆞᆼ이[illegible]난지라이날장상셰와여왕별셰의일
을이어사기운너ᄒᆞᆫ미ᄒᆞ야사ᄅᆞᆷ후출입ᄒᆞᆫ모르지날
서의연뎌와뎌쌀곳ᄌᆞᆫ후을붓드려안뢰시면집뫼ᄒᆞᆫ
티이다곤ᄌᆞ나아가그혭을붓드러산치니에외믜을오
듸잡다가불너산지며ᄂᆞᆯ미온빗켤셰여좌우을보며
이생계의면목을보고ᄲᆞ모밀도못ᄒᆞᆫ게날확사문발별
쎼엿더ᄒᆞᆫ요에뷔칠음ᄒᆞᆫ다가셸로대쎼생의피치ᄒᆞᆫ일
도잇모다ᄒᆞᆫ고손의로연겹을잇글고참박기나와가만나
일로대니일작의술을퍼와별지길ᄒᆞᆷ과음양연후을
ᄒᆞᆼ되짐작ᄒᆞᆫ나곤ᄌᆞ난이왜지발트소셰연겁나아모일혈

쫄몰나왈아지못게라무삼얼어요새의쌀쫄몰의맘을
보옵나좌우딕어다부인의뫽이쇼조곰도남ᄌᆞ의뫽안
이요변증니또ᄒᆞᆫ풍한셔습의샹ᄒᆞᆫ비안니라ᄉᆞ도음의
변증은남녀을분별ᄒᆞ야남ᄌᆞ의변은샹기울도와칠료
ᄒᆞ고녀ᄌᆞ의변은음기울도와치료ᄒᆞ나니이병증은쳔지ᄌᆞ
연ᄒᆞᆫ일노난바요니셰상약의로난곳칠지리업사오니진실
불기의지말고바도이르소셔연컨니티편살석ᄒᆞ야멸니을
쑤게고칠음ᄒᆞ다가셤뭄ᄒᆞᆫ은가잠놀내되것치도난텬연니
ᄒᆞ야담쌀션싱의딸삼을드르니소싱도오히려알지라업
자오나가쳔이일적이업신샹명ᄒᆞ야소연지샹니되엿사오니

엇지셤의나의심니어사오릿가ᄒᆞᆫ디어의소왈니비록화
타의쳥낭셔난어더보지못ᄒᆞ야시나편작의연곰셔ᄂᆞᆫ비와
난니만일그듯아타ᄎᆞ호타도외심니잇시면곰후저산왜
뻥쉐ᄅᆞᆯ엇지소호티맬산ᄒᆞᆫ오며ᄉᆞ혼쳔ᄒᆞᆫ의면을밧
자와밧삽다가도라가황상세올혼디로알외온[illegible]
쳔ᄒᆞᆫ회잇삽고ᄉᆞ도ᄒᆞᆫ뵙쉐가잇고히ᄒᆞᆫ뵈니곰쵸반소기지
달고실산을바도일외쇼쉐곰쟈돈후사뎌쌀초실나자쉐
이얄아멸닐외ᄒᆞ고달이너다어의언ᄒᆞ야물뎌사녀잠착ᄉᆞ
그우산ᄂᆞᆫ물보고외샘ᄂᆞᆫ나물을고지엽쉐물더가나와이
날황혼의이후졀신을차뎌연경다뎌문쌀어의니변쉐

을무어시라ᄒᆞ더뇨연면니ᄃᆡ왈위티ᄒᆞ다ᄒᆞᆯᄲᅮᆫ안니라ᄉᆞ오ᄒᆞᄂ
올니윤말삼ᄒᆞ더어다ᄒᆞ고어의ᄒᆞ던말삼을낫〃치고ᄒᆞ니
듯기을다ᄒᆞᆫᄃᆡ티견왈고어인말인뇨장차큰일나날너놈
다너유모가ᄎᆞᆷ셜ᄒᆞ야낫타난일이오다곰ᄌᆞ멸이를ᄒᆞᆫ들
며왈불가ᄒᆞ다엇지일현일이엇사오릿가어와뎍을보고
음양을판단ᄒᆞ더이다이후이윽히침음ᄒᆞ다가〃로ᄃᆡ진
실노일어ᄒᆞᆫ면장차엇지ᄒᆞ리요곰ᄎᆞ고곰의시을보고기ᄲᅥ
얼어기지못ᄒᆞ야단졀니셔뎌안졔ᄉᆞ도리젹쳬곰일의소졔
다려물으시니엇지써실샹을고치못ᄒᆞᆫ듸요져졔비독숨
쳔입지찰전조와곰운조화을가졔시나여곰의근본을ᄒᆞᆯᄯᅵ

좃니 감초오지 못ᄒᆞᆯ지라 잠고 ᄲᆡᆨ의 뼤와 ᄊᆡ와 삼피 ᄲᆡᆨ외
부츄뎐도 좃시 여ᄌᆞ의 틔을 버셔나지 못ᄒᆞ야 거든 ᄒᆞᆫ 물
뻐여뎜간 조고만 ᄒᆞᆫ 여ᄌᆞ야 일너 무엇ᄒᆞᆯ 잇ᄉᆞ 저졔 고집
ᄒᆞᆫ야 ᄉᆞᄅᆞᆷ 섬기 쓸피 둘다 ᄒᆞᆫ 당이 면 금즁의 ᄂᆞᆯ 그지 연
졍남ᄌᆞ 더부러 조심ᄒᆞᆫ 듯 못ᄒᆞᆫ 시퇴 미ᄉᆡᆼ 셔 고난 쳐ᄒᆞᆫ 미
졔ᄂᆞᆫ 년게 장ᄉᆡᆼ 월도 독히 며 ᄒᆞᆫ 수염도 나지 안니ᄒᆞᆫ 면 소견
수삼ᄒᆞᆫ고 졔ᄂᆞᆫ 실가 을 졀ᄒᆞᆫ 후의 소졔 셔ᄒᆞᆫ 임신ᄒᆞᆯ
거ᄉᆡ나 저졔 보졔 실사 늘 졀치 못ᄒᆞᆫ 면 조졔 보졔 입 잡
ᄒᆞᆯ 일가 만일 졔졔 ᄉᆞᄃᆞᆷ 초디 취쳐ᄒᆞᆫ 엿다가 나 좃의 여ᄌᆞ
난ᄉᆞ 타날 거시니 고쳐 난 엇지 ᄒᆞᆯ 니가 셔ᄒᆞᆫ 가지 난 뎌ᄌᆞ 도 삽

삼년을 효셩ᄒᆞ며 흉듕ᄒᆞᆫ다가 유모의 말노 잠ᄭᅡᆫ 화ᄒᆞ사면 져 날ᄂᆞ고
어의 ᄉᆞ졍ᄒᆞᆫ 의심ᄒᆞ니 말나 졈ᄂᆞ 잠 화ᄒᆞᆫ면 코 ᄃᆞᆺ 되 ᄂᆞᆫ
너울 가ᄉᆞ오 ᄉᆞ졍ᄒᆞᆫ 가지 ᄂᆞᆫ 어의 쳥ᄒᆞᆫ ᄯᅢ 슬흔 ᄯᅵ도 ᄉᆞ랑 달
츄면 ᄯᅡᆫ ᄎᆞ졈 니다 ᄇᆞᆯ 거ᄉᆞ 구혀ᄒᆞᆫ 직져 비록 남은
망도ᄒᆞᆫ 번 말니되면 힘셰ᄒᆞᆷ미 과도려든 화물 ᄯᅢ여
자의 몸의로 엇지 참괴치 안니ᄒᆞᆫ디 요만 졔ᄒᆞᆫ ᄯᅵ니가
지와 쳐ᄂᆞᆫ 년ᄯᅦ려 ᄉᆞᆯ의 ᄉᆞ심과 효셩 몸 논니 문안 하게
젼의 시ᄉᆞ로 ᄉᆡᆼ소ᄒᆞ야 일ᄉᆡᆼ을 화ᄉᆞᆼ ᄲᅢ앗 달ᄒᆞᆫ 쇠
교시도을 벼셰화 광을 박고 우고 조복을 벼셰의 ᄉᆡᆼ
블ᄭᅡ ᄎᆞ와 요ᄒᆞᆫ고 슉여 되여 반ᄌᆞ의 침실을 ᄒᆞ져 유

참외드려여ᄌᆞ되녀오를가ᄒᆞᄂᆞ니이다이ᄒᆞᆨ사듯기를
다ᄒᆞ되안석을ᄐᆞᆯ연나ᄒᆞ고ᄡᆞᆯ어엽ᄉᆞ부다네아ᄋᆡ의ᄯᆞᆯ
이셔주연쟁논니죽키타열의입신ᄒᆞᆫ뎐쳔혈의
유ᄎᆞᆫ을이을지시니ᄲᅵ와오타비ᄒᆡ셔못고텹지삼
너찰니요ᄯᅢ납고너납도다ᄯᅢ외십연고ᄯᅧ니여가되
쳔고ᄋᆡᄒᆞ니ᄒᆡᄃᆡ로다쳔ᄒᆞᆫᄉᆞ름니엽숙히ᄭᅵ지못
ᄒᆞᆫ쳐효와ᄯᅡᆯ오벅과니ᄌᆞ양ᄒᆞᆫ던본의로일조예
귀ᄒᆞᆫ예ᄌᆞ되ᄯᅳᆯ설어ᄒᆞ노다곡조쇼ᄡᆞᆯᄆᆡ난그ᄒᆞᆫ
나혈얄고로물을아져보ᄒᆞᆫ뎌도소ᄋᆡ다ᄒᆞᆫ갓벼살
노름을일ᄭᅵ고욕명벌나시을앗기나예부터현ᄂᆞᆫ

군ᄌᆞ난 곰뎐 바리기을 던신가치 ᄇᆞᆯ여 ᄒᆞᆨᄌᆞ난 ᄉᆞ도 되고
ᄒᆞᆨᄌᆞ난 쳐사 되난ᄉᆞ만 ᄒᆞᆫ지라 엇지 ᄌᆞᆨ고만 ᄒᆞᆫ고 몃을
의논ᄒᆞ오ᄃᆡ 쳔ᄒᆡ의 몸의도 영귀ᄒᆞᆷ과 호화ᄒᆞᆫᄃᆡ
옛ᄉᆞᄅᆞᆷ의 세ᄌᆞᆼ 안니계시요 날ᄌᆞ의 사업은 다시더
ᄇᆞᆯ될 계시엽난지라 ᄯᅢ 쳔의지 혹지되와 군ᄌᆞ의
셔친예 퇴ᄒᆞᆯᄉᆡᆼ 바다 강산 보면 ᄒᆞᆫ난 ᄑᆡ를 셔치ᄌᆞᆫ
외짓처 두터 ᄯᅢ무되면 후세ᄉᆞᄅᆞᆷ의 뉘 안니 ᄎᆞᆫ찬ᄒᆞᆫ
ᄃᆡ요셜ᄅᆞ의 ᄃᆡ소ᄒᆞᆫᄃᆡ 이후 악연ᄒᆞ야 ᄃᆡ답지 안니
ᄒᆞ고 ᄉᆞᆫ외로 벽을 치고 돌탄ᄒᆞᆫ기을 마지 안니ᄒᆞᆫ더라
ᄯᅢ일의 어의 ᄇᆡᆯ을 보고 쳔ᄌᆞ게 주달ᄒᆞᆫ물 무ᄅᆞᆫᄃᆡ 이

후훌관니만안ᄒᆞ며쌀스사로쳐리할도리잇시니셜
어말을말나어의저빈쌀호인니맘허당폴ᄒᆞ며산나
다만쳬몀젼가와샹몸의벌쳬을부삼ᄒᆞᆷ쳬라ᄒᆞ며
엇사이후발연디로ᄒᆞ며 벌상을될칠고열어난저
메봄안을키페불잇셔가노디쳠상니디다뎌즐신의
벨을보라ᄒᆞ여셰사ᄋᆞ내맛당히볌만몰네쇠여날문
못ᄒᆞ뎐ᄒᆞᆫ말을찰셸ᄒᆞ야즐실을지척ᄒᆞᆫ온엇진
포티요쳘상니보니신비안니면네엿지콘죄을면ᄒᆞᆫ
미요시본디ᄒᆞ토의샹ᄒᆞᆫ벋니잇셰복발ᄒᆞ여셰
날네감히괴이ᄒᆞᆫ말을십밬ᄁᆡ셔ᄉᆞ믐의ᄯᆞ음

을쇼동져ᄒᆞ고ᄯᅩᄒᆞᆫ부신의덕이라ᄒᆞᆫ니 엇지날을일
엇잣엽슈이여기나쇼어의이후의말을듯고죄을청ᄒᆞ
야부슈이사뎌ᄒᆞᆫ데연쳥나나아가그뎐을지유ᄒᆞ야일
드되쳔신니비록짐뎍ᄒᆞᆫ미신기ᄒᆞ오나가현의산샹의
의심되난일니업시니분명쇼도의말ᄒᆞᆫ비라이디로
쳔ᄌᆞ제츄달ᄒᆞᆫ미솔을ᄒᆞᆫ노라 에의쳐락ᄒᆞ고도라가
쳔ᄌᆞ쳥의나아가효도예셔샹ᄒᆞᆫ변미라 알요니산니
대셔어의을명ᄒᆞ야즁야도슈되긔듀고ᄒᆞᆫ라ᄒᆞ시니 어
의명을밧다와이후부즁의이ᄯᆡ지날연명나나만ᄂᆞᆫ닶
의두고뫼도약의도더사러니어의나후도난말을발

디진의도ᄒᆞᆫ ᄆᆡ을 어더 위티ᄒᆞᆫ 지셰의 당ᄒᆞ야ᄯᆞ
가찬ᄒᆞ고 울보고 ᄯᆡ면을 비셜ᄒᆞᆫ 비라 이 소시ᄀᆞ을
듯고 뇌 안ᄂᆞ 참여ᄒᆞᆯ니 보ᄌᆞᆫ 산 망다 치하ᄂᆞᆫ 글을 지
어 보ᄂᆞ니 수쳔 ᄲᅦ 셜 일니라 이후 이소 곱ᄋᆞᆫ 관을
사고 옴남 조복을 입고 옥ᄃᆡᄅᆞᆯ ᄯᅴ여 셔니 그 위의 ᄯᅧ
돈니 찰난ᄒᆞ고 잔ᄎᆞ 셜비ᄒᆞᆫ ᄯᅢ 좌ᄌᆞᆫ 져션다 ᄒᆞᆫ 차
ᄒᆞ더라 좌례로 좌졍ᄒᆞᆫ 후 보소 ᄇᆡᆨ관다 ᄯᅢ 차ᄒᆞᆫ 물
ᄒᆞᆷ찬ᄒᆞ더라 이후 사ᄃᆡ 왈 ᄂᆡ 쳔 ᄇᆡᆨ나 소ᄂᆞᆫ ᄂᆞᆫ 혀 ᄉᆡᆼ을
후ᄌᆞ 문의 ᄒᆞᆫ 휼ᄒᆞ신 ᄂᆞᆫ 혀을 심업어 ᄉᆞᆯ노ᄅᆞᆯ 어
더니 어가 ᄇᆡᆨ관다 일시의 치ᄒᆞᄂᆞᆫ 글을 드리게 ᄒᆞᆯ

이후밧드러좌우로ᄒᆞ여곰낫ᄂᆞᆫ쳐뎐담ᄒᆞᆫ후의좌ᄌᆞᆷ
예나아가사뎌뫌디열ᄒᆞ온쳔신내빌헛탓ᄌᆞᆷ간ᄒᆞ새
너엿ᄌᆡ참피ᄒᆡ안니ᄒᆞᆯ내보기두려주창ᄒᆞᆯ나소와두
어순빈지난후의유ᄀᆞᆨ노소쌀뎐후뎡일외ᄌᆞ됴모
효ᄀᆡ열절기치안니ᄒᆞᆫ데서ᄌᆞ뎐니디셜을비셜ᄒᆞᆫ
니아지못ᄒᆞ다무삼연고잇난싯ᄯᆞ이후츄연감ᄀᆞᄒᆞᆫ
야ᄉᆞᆨ기탄키밋티두어줄눈물ᄊᆞᆯ니흘여옥면을
덥펴말삼을못ᄒᆞ다가ᄋᆞ도디하ᄉᆞᆼ니며도기구ᄒᆞᆫ와샹
친을일ᄌᆞᆨ여희옵고ᄒᆡ엄친동ᄉᆡᆼ을다되고여러춘츄
을보니소ᄂᆡ몸은비록셩기ᄒᆞᆫ다ᄒᆞ려니와ᄎᆔ담ᄒᆞᆫ

온날은불디올날너 엽난셔라 죠뎐주셕의 끌네견봊

ᄒᆞ야더니 신변너지되ᄒᆞᆫ여 거의 황ᄒᆞᆫ각너 칠개쇠ᄒᆞ혁

칠의효져 실ᄒᆞᆫ야 ᄉᆞ사도열후열 쳥ᄒᆞᆫ여 비주ᄒᆞᆯ남

뵈고져ᄒᆞ니 쇼다ᄅᆞᆫ연고업나이다 좌중너 ᄒᆞᆫ사ᄒᆞᆫ물따

지안서ᄒᆞᆫ더라 술이반흙ᄒᆞᆫ니 좌우로ᄒᆞᆫ여곰 연필을

불드니 뫃좌중의나 와 공순너 비뎌ᄒᆞ고 좌우을 둘

녀보실 고ᄒᆞᆫ수ᄒᆞᆫ시산과 새닥ᄒᆞᆫ 봉모진실노 ᄉᆞ름의

눈너빠시고 졀신너 셔늘ᄒᆞᆫ야 ᄒᆞᆫ번보ᄃᆡ 뉘산너 사람ᄒᆞᆫ

며 뉘산너 ᄎᆞᆫ찬ᄒᆞᆫ더업더라 이후을 칠ᄒᆞᆫ쟝 뵈 좌ᄒᆞᆫ여

쌀 현후의아희 진실노 난현난져ᄒᆞ쇼 쳔시담의유품

울이ᄒᆞ더ᄒᆞ마마연셰엿ᄌᆡ나ᄒᆞ요공자겁쌀삼년
이로소이다잔시랑나손을잡고탄식쌀이혓ᄂᆞᆫ
비록기셰ᄒᆞ여시나혹되눈을ᄒᆞᆷ의ᄆᆡ도가현후난
소연의의로부귀쟉ᄒᆞᆯ러업고뎨기골나스ᄒᆞᆫ현혈
의아ᄅᆞᆫ되지산얼페ᄉᆞ니엇지살옴닙지안니ᄒᆞ혀
요난ᄒᆞ야이ᄒᆞ후다ᄯᆡ쌀엽치뫼ᄒᆞᆫ민을와논할진
뎨비의미거ᄒᆞᆫ여ᄉᆞᆨ나잇셰죵되ᄌᆞ문의욕되리
산얼쎄시니엇더ᄒᆞ요이후지녀잇거자혀쌀ᄒᆞ
쳔싱나만일더혀냥산나ᄃᆡ게샤디열ᄒᆞᆫ나분ᄒᆞ공을혜
알벌친ᄃᆡ은뎌을엇뫼젹앉ᄒᆞ일ᄒᆞ잔시란니

ᄯᅩᄒᆞᆫ대치ᄒᆞ야혼인을뇌졍ᄒᆞ니어사반ᄎᆞ과예부시
랑유우셕과이부시랑위츙이상셔노덕무려ᄌᆞ마
고우도교도가랑됴멸ᄒᆞᆫ리라혼인뇌졍ᄒᆞ물보고
우워가도뎌혼인ᄒᆞ려ᄒᆡ옛씨날혈니취쳐ᄒᆞ기젼의
엇지고아취혼사ᄅᆞᆷ을몬져쳥ᄒᆞ나요어호소활나날
본디숩별니잇셔삼셥의취쳐ᄒᆞᆫ나니이삼쳔의
혼인니엇지밥부려안에려요위츙니왈그려ᄒᆞ면
쳡쳬삼셥의취쳐혼다이후납왈ᄉᆞ둘의홈(좀)질
니달나라쳬ᄂᆞᆫ날과갓지안닌지라금연니라도락말헐
세교쳬ᄒᆞ나니다상셔잘연니딧티셧다ᄒᆞ참뎌몰ᄒᆞ

야현셩의무드ᄅᆞᆷ을ᄭᅢ며ᄭᅢᆯ고ᄌᆡᄒᆞᆫ면아히난본졔ᄒᆡ
최ᄒᆞ고현은나ᄒᆞᆫ의최쳬ᄒᆞ면법예담ᄒᆞ나효이후ᄭᅢᆯ
쳔ᄒᆞᆫ일너유셩유쳔ᄒᆞᆫ너쳔너두츌ᄒᆞᆫ면엇지예
졀의손샹ᄒᆞ며츌셩의ᄲᅡᆫ히되더요좌ᄒᆞᆫ나다현쳘
큰물ᄒᆞᆯ랑ᄒᆞᆫ회잔샹ᄒᆡ산ᄒᆞᆫ갓어딘다서ᄲᅡ달ᄯᅳ름
일디하에날소연멸사취ᄒᆞᆫ너데ᄲᅡᆯᄒᆞᆫ야최ᄃᆞᆯᄒᆞᆫ
돼이후난츌노질시난ᄯᅵ동너엽ᄯᅵ날좌ᄒᆞᆫ졔션너흠
후라젼ᄒᆞᆫ되요동좌산너ᄒᆞ고노리부드타ᄒᆞᆫ되ᄒᆞᆯ시
요동리ᄲᅡᆫ너ᄒᆞᆫᄯᅥ날모든손너져삼젼ᄒᆞ너이ᄒᆞ구답
ᄭᅡᆯ가우난쳥샹의못ᄒᆞ난빈하쳥쳔디엿ᄉᆞ롬의가ᄉᆞ

을ᄒᆞᆫ대이다좌ᄌᆞᆫ니허락ᄒᆞᆫ시날아ᄃᆡ믈우셔고관손을
빈치ᄒᆞᆫ야도쳐사의귀셔ᄃᆡ사ᄅᆞᆯ드ᄅᆞ곡니초ᄅᆡ쳔낭ᄒᆞᆫ
야옥빈ᄂᆞᆯ시최난듯ᄒᆞᆫ니ᄎᆞᆷ한양니ᄒᆞᆫ더업더라좌
ᄌᆞᆷ은두삼니질셔퇴ᄒᆞᆯ노여후난불쳘ᄒᆞᆫ이쉬니만
ᄒᆞᆫ거날잔샹쎄난심ᄒᆞᆫ니ᄒᆞᆺ초활ᄒᆞᆫ바편신니어질ᄒᆞᆫ
더다쳑양의잔ᄎᆞᆯ을파ᄒᆞᆺ고모든빈긱니일고쳐ᄒᆞᆯ졔
어착사잔ᄂᆞᆯ들고눈믈을ᄒᆞᆯ여소텰ᄒᆞᆫ다가쌀확
ᄉᆡᆼ은들의니ᄒᆞᆯ진비녀난ᄃᆞᆯ나다퇴쳐못ᄒᆞᆫ난빈ᄂᆞᆷ확
ᄉᆡᆼ니소연부터부귀ᄒᆞᆫ미쪽ᄒᆞᆫ지라조만간의벼사ᄅᆞᆯ
갈고들어잇고쳐ᄒᆞᆫ나니오날ᄂᆞᆯ몸왓난쳠ᄒᆞᆫ의견

을이저더환샹의이휼ᄒᆞ시난은혀난티산니그무삽
교좌희엣쟌저좌이러ᄒᆞᆫ덕닭을엇지다흘얍ᄒᆞᆫ되요
야온니일샨소ᄒᆞ야사직ᄒᆞ예ᄒᆞ난니재곤은후샨의월
을셩샹거아효여버살을가라주새때ᄒᆞᆫ면몸니맛
도독은혀을면심블몃열슈ᄒᆞᆫ나히나좌준니더
견쌀쳔후비아으로국가의골신이요불작니외담퇴약
비ᄒᆞᆫ기날엔리일초의일쳔날을ᄒᆞᆫ나보아여흡아담다
운열흘을실굴가샹을가례으리되단속ᄒᆞᆫ며쌀쳔훈
소연의도엣재벼살을저발되니요반은나재못ᄒᆞᆫ야ᄃᆞᆫ
넌일의와ᄉᆞ질쳔ᄒᆞᆫ미아직아쉬못ᄒᆞᆫ되ᄋᆞ옵ᄋᆞ이다곰

열의져곰을이별ᄒᆞ면어ᄂᆡ히여나다시보리요다시난
볼셰업고다시잘길날나업실지라쳔만바라나니모
다신열위챤곰은곰명을심새실홈을쥭빅의들
러오고현졍의별을생박지마르소셔ᄒᆞ며모든나을산
대ᄒᆞ야쌀졔현의도더부러관곡의지니을두엿더니
쇼졔볼칠ᄒᆞ야ᄲᅧ살의ᄯᅳ지업셔ᄂᆞ도이별ᄒᆞ니요
듣날니업실지라졔현은사군사친을즁효도ᄒᆞ심새
ᄒᆞᆫ날갓치ᄒᆞ고ᄂᆡ의졍셩을쇠지말나날을곤치리되셔
도소ᄅᆡ로낫쳘가되보고ᄎᆞ져실어ᄒᆞ야ᄒᆞᆼ면의눈물을흘
여나좌즁의모든손니ᄌᆞ연감동ᄒᆞ야비감ᄒᆞ더라어셔

노소빈긱나다만조ᄒᆞᆫ말삼의노왼도랄샹분이요고ᄋᆡ뎝늘
몰나고히여기더다날나환혼을당ᄒᆞᆫ미졔넌니일너
의홋더가ᄶᅵ날이샹쳐어별ᄒᆞᆯ디잔샹쳐이혈의살어
ᄒᆞᆫ물보고의심ᄒᆞᆫ되졔의본ᄉᆡᆼ니갑밉ᄒᆞᆫ기도ᄒᆞᆫᄯᅢ여
복을못ᄒᆞᆫ고ᄌᆞ졔난쳐ᄒᆞᆫ야고뎌ᄒᆞᆫ난ᄉᆞ놀니야엽별
리여이후의소ᄃᆡ를잡고팔을여도만지며이도히햇야
네일다시올ᄭᅵ시니네ᄯᅩ즐일의시라이후손을셜화고
ᄲᆞᆯ네일연고엽시면혈을좌리리라잔샹쳐복연나도라
가나이후모든손을다보닌후의ᄃᆡᆹ샹의올나난만을
ᄯᅩ다뫼고동곡ᄒᆞᆫ야곤치지안니ᄒᆞᆫ제날연ᄭᅵᆺ니러삼쉬도

ᄒᆞᆫ여비아ᄒᆞ노눈물을ᄲᅳ두유요탄식ᄲᆞᆯ가허ᄯᆞᆺ갑ᄉᆞ
다질기ᄯᅵ오날ᄉᆡᆼ이로다네의십연공덕나엇지일조의
그림의셕나되얏고ᄒᆞᆫ며화탄ᄒᆞᆫ물마지몯ᄒᆞᆫ더다ᄯᅥᆫ일
ᄉᆡ날직효복을입고ᄭᅵ올을드러열골을보고다시보
ᄯᅧ조복과옥디을무수히ᄯᅡᆫ지ᄯᅢ표을지여소리의너ᄉ
고절ᄒᆞᆫ의일의나ᄯᅡᆫ효박과나효힝을파ᄒᆞᆫ고헛더
지세날표을ᄲᅮᆯ이나쳔ᄌᆞ덕견ᄒᆞᆫ세서고효의ᄒᆞᆫ여셔ᄯᅢ
쳥쥬ᄐᆞᆼ미사마겸ᄲᅧᆼ부ᄉᆡᆼ셔즙현각티ᄎᆞᆷ사이쳔ᄯᅢᆼ음
근빅비ᄃᆞᆫ우ᄉᆡᆼ연우ᄒᆞᆫ졔져ᄒᆞᆫ노나신나일ᄯᅡᆫ변즉
을회을지엿사오나ᄒᆞᆫ염ᄒᆞᆫ옴소ᄭᅴ신나본디ᄎᆔᄎᆞᆷ

유ᄒᆞᆫ리질노금쳔을다사ᄃᆡ옴더니일직쥬붐지탁을
만나가셔ᄒᆞᆺ더져의ᄐᆡᆨ할고리업삽고털ᄒᆞᆫ오린ᄢᅦ
잇셰신의영최을쳔산의운잔ᄒᆞᆫ솔노더씹사화
마지못ᄒᆞ야거울을던지고칼잡을변ᄒᆞ야남ᄌᆞ의몸
너희예삼년조도을지난후의어린마암의강포ᄒᆞᆫ
욕을보가ᄒᆞ야남ᄌᆞ로화쳬ᄒᆞ야ᄒᆞᆫ올심ᄭᅦ룩가
의년지을마ᄃᆡ온셰을당ᄒᆞᆫ여쳔만비외여옴문의올
나외담너몸이갈노와이르더곰멸니곰ᄒᆞ후셰달ᄒᆞ너엿
지외담치안나ᄒᆞᆫ오잇가예로부터신선너죽진ᄒᆞᆫ더마
온후의표ᄒᆞᆫ즐을보도요땅위티ᄒᆞᆫ미잇사와비록

현인군ᄌᆞ라도관사각별ᄒᆞ나살펴ᄉᆞᆸ게든ᄒᆞᆫ물며효
션은셰샹을ᄒᆞ며송을박고오고일셜솔갈니
온ᄌᆡ십삼연나라셜디엽난몸의조영홈과작록
니일져덧셜ᄒᆞᆫ오며엿ᄌᆡ쇠되ᄒᆞᆫ미엽ᄉᆞᆸ오텃가일
허ᄒᆞᆫ온고로발셔물더가고져ᄒᆞᆫ오나진졍을아ᄅᆞ외
지안니ᄒᆞᆫ오매셜삼을두번소기난죄너속홈ᄒᆞᆫ올
거시되ᄌᆡ물기다리실상을산달ᄒᆞᆫ옵고디사다쳥유
후신산과별부상셰별부와티학사관면을올이ᄉᆞᆸ고
별을기다리오나복길져ᄒᆞᆫ난ᄒᆞᆫ찰ᄒᆞᆫ옵소셔ᄒᆞᆫ엿더
라

壬子臘月旣望書于松齋